

3·1

만세운동
100주년

시흥지역의 3·1운동과 독립지사 이야기

시흥의 함성

100년

1919년 당시 소래면·군자면·수암면에서도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시흥지역 3·1운동에는 독립지사
권희 김천복 윤동옥 윤병소 장수산이 있었다.
들불처럼 번진 그날의 뜨거운 함성은 100년이 지난 오늘도
시흥을 깨우고 내일의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시흥문화원

1919-2019

시흥의 함성

100년



차례

6 발간사

8 **1. 시흥지역의 3·1운동**

28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30 권희
42 김천복
58 윤동욱
74 윤병소
84 장수산

108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131 **100년 되새김**

132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136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138 시흥지역 3·1운동 자료 일람

발간사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원에서는 시흥시의 지원을 받아 ‘시흥지역의 3·1운동과 독립지사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기록집은 1919년 일제의 서슬 퍼런 압제에도 불구하고 민족독립을 위해 떨쳐 일어났던 시흥지역의 부천군 소래면과 시흥군 수암면, 군자면 3·1운동을 소개하고 이들 3·1운동에서 주민들을 독려하며 민족독립운동을 위해 애쓰신 수암면 3·1운동(비석거리)의 윤동욱·윤병소 애국지사, 군자면 3·1운동의 권희·장수산·김천복 지사 5인의 활동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손 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시흥지역의 3·1운동과 독립지사 이야기’는 너무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시흥지역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소개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이 시흥지역의 3·1운동을 알고자 할 때 이 기록집이 친절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문화원장 김 영 기

1

시흥지역의
3·1운동

3·1 100

온 몸 으 로 외 친
“대한독립만세”

시흥을 깨우고

들불 처 럼 번 지 다



1. 시흥지역의 3·1운동

3·1운동 100주년이다. 1910년 식민 지배를 본격화한 일제의 경제적, 정치적 수탈과 억압은 1919년, 전국을 ‘조선독립만세’의 함성으로 물들였다.

무장한 군경 앞에서 맨몸에, 태극기를 든 채 목숨 걸고 불렀던 만세운동. 1919년의 봄은 그렇게 뜨거웠다. 항일독립운동은 식민 기간 내내 이어졌지만 1919년 봄에는 전국에서 나이와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된 날이 바로 3월 1일이니, 한민족에게 3월의 첫날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하고 가슴 벅찬 날이다.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는 이른 새벽에 학생들이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작되었다. 정오 무렵부터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은 속속 탑골공원에 집결했다. 반면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였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갖고 경찰에 그 소식을 알렸다. 곧 헌병과 경찰에 체포되었다. 같은 시각 수천 명이 운집한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서울 시내를 만세소리로 가득 찼다. 3월 1일에 서울에서만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평양·진남포·안주(평남), 천천·의주(평북)·원산(함남) 등 6개 도시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부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였다.¹⁾

1) 기억과 감사,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공식홈페이지 www.together100.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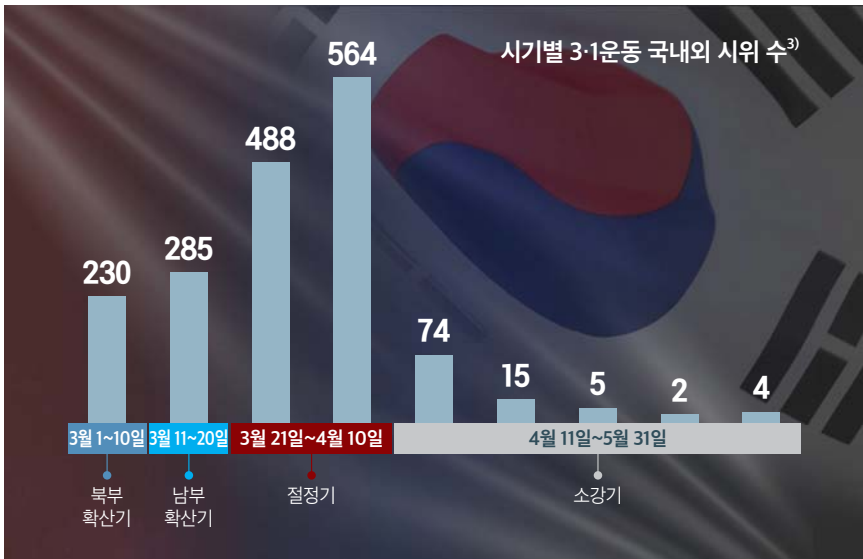


1. 시흥지역의 3·1운동

시흥지역의 3·1운동

시흥지역²⁾의 3·1운동은 3월 말부터 4월 초에 집중돼 있다. 이 기간은 전국의 3·1운동 절정기와도 일치한다.

시흥의 독립지사 권희, 김천복, 윤동옥, 윤병소, 장수산(장순한) 역시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렀다.



2) 이 글에서 '시흥지역'은 2019년 현재의 시흥시 지역을 의미한다. 3·1운동 당시 오늘날 시흥시의 북부 지역은 부천군 소래면에, 남부 지역은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에 속했다. 시흥지역의 3·1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당시 시흥군 및 인근의 만세운동은 필요한 경우 다루도록 한다.

3) 통계수치는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samil/>)를 참고했다.



1. 시흥지역의 3·1운동

‘시흥지역의 3·1운동’을 독립지사 5인의 행적과 현재의 시흥시 지역에 해당하는 1919년 당시의 행정구역 중 소래면(부천군), 군자면, 수암면(시흥군)⁴⁾을 중심으로 훑아보았다.

부천군 소래면 3·1운동

소래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3월 24일 그 첫 기록을 만날 수 있다.

3월 24일 부천군 계남면 소사리 부근 6개 마을에서 산 위에 화톳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심곡리에 있는 소사경찰관주재소의 주재순사가 출동하여 해산시켰다. 이날 부천군 계남면과 소래면 등지에서 약 750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다.⁵⁾

소래면 만세운동은 부천군 계남면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시흥에서 일어난 첫 번째 3·1운동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소래면은 소래산과 우시장인 뱀내장(사천장)이 있는 변화가였다. 1916년에는 뱀내장 인근에 소래면사무소도 이전, 개설되었다.

장터, 산, 면사무소는 3·1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왜 그럴까?

4) 수암면의 경우 현재 안산시가 상록구 수암동이라는 행정구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 수암면은 현재의 시흥시 능곡동, 연성동, 목감동 등을 포괄하는 지역이었다.

5) 3월 24일 경기 부천군 계남면 일대의 화톳불 시위, 사건정보, 삼일운동DB(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작성자 : 허영란)



1. 시흥지역의 3·1운동

농촌 시위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변화한 거리에서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고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옛날부터 농민항쟁에 자주 등장한 햇불시위, 봉화시위도 일어났다.⁶⁾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5일장으로 정착은 장시를 통해 지역민이 각종 생활정보를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자 물화유통, 농촌경제의 추이와 민심의 동태를 살피고, 대중성과 익명성을 통해 여론 형성의 장이었다.⁷⁾

1914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 「면의 명칭 및 경계확정」을 하고 1917년 제령 1호 「면제(面制)」를 제정·시행하였다. 식민지관료행정기구는 식민지 민중을 억압, 수탈하는 주요한 도구로 면은 지방행정의 최말단 기구였다.⁸⁾

산에서는 농민항쟁 당시 자주 등장했던 햇불·봉화시위가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기능했던 넓은 장터는 만세운동을 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공간이었다. 면사무소는 일제가 식민 지배를 행사하는 최하위 행정 기구로 민중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면사무소는

6) 기억과 감사,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공식홈페이지 www.together100.go.kr)

7) 이병권, 2017, 「시흥시 장시와 민족해방운동」 『경기향토사학 제22집』 157쪽

8) 이병권, 앞의 글, 138쪽



1. 시흥지역의 3·1운동

3·1운동 당시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주요 만세운동 장소 중 하나로 이용됐다.

뱀내장에서의 만세운동은 구체적인 기록으로 만날 수 있다.

3월 31일 부천군 남동면 서창리 송운중의 집에서 같은 마을 송성용이 구창조를 시켜 '4월 1일 소래면 사천시장으로 주민을 모아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는 내용으로 남동면내 각 마을 구장 앞으로 보내는 통지서를 여러 장 작성하게 했다. 송성용은 김춘근, 윤영택, 박중일과 협의하여 통지서를 각 마을 구장에게 배부했다. 4월 1일 사천장날에 80~300명 가량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다.⁹⁾

뱀내장은 1770년에 발간된 『동국문헌비고』에 이미 사천장(蛇川場)으로 등장하는 우시장이다. 개시 이래 날짜 변동 없이 1·6일 정기장이 열렸던 곳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진 4월 1일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당시 뱀내장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손꼽히는 우시장으로 수원장(4·9일)과 황어장(3·8일, 현 인천시 계양구)을 연결하는 기능도 했다. 때문에 수원과 인천의 소식은 물론 서울의 상황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정보 수집 및 여론의 형성과 확산, 모두가 용이했던 뱀내장은 자연스럽게 만세운동의 장이 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수

9) 4월 1일 경기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사천시장 만세시위, 사건정보, 삼일운동DB(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작성자 : 허영란)



1. 시흥지역의 3·1운동

원장과 황어장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다음 날인 4월 2일에도 ‘사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80여 명의 주민들에게 발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⁰⁾

3·1운동 당시는 아니지만 뱀내장 일대에 대한 1936년의 언론 보도는 일제강점기 이 지역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 소래면의 사천장(蛇川市)은 백여년의 역사를 갖은 경서(京西) 유일의 가축시장으로, 삼백여호의 집단부락이며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학교, 경찰주재소, 수리조합 등의 시설이 있는 곳일 뿐 아니라 미구에 실현되라는 수인철도(水原仁川間鐵道)의 중심지로서….¹¹⁾

소래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아직 찾을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천군 계남면 소사리 부근 6개 마을에서 산 위에 화롯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기록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인근 수원군의 경우 ‘4월 2일 우정면과 장안면의 거의 모든 산에서 일제히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¹²⁾는 기록도 발견된다.

10) 소요사건 경과 개람표, 송성용 판결문(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11) 동아일보, 1936.2.22, 「소사발전위해 교섭위원상경」(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일부 띄어쓰기는 현대에 맞게 수정하였다.)

12) 4월 2일 밤 경기 수원군 우정면 각지의 산에서 일제히 산상 봉화 시위, 사건정보, 삼일운동 DB(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작성자 : 허영란)



1. 시흥지역의 3·1운동

소래산(299.4m)은 예나 지금이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일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갖는 산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1231년(고종18년)부터 1254년(고종41년) 6차례에 걸친 30여 년간 몽고의 침입에 맞서 고려는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그런 대몽 항쟁 중의 한 곳이 소래산이다.

『高麗史』 권24 세가24 고종43년 4월의 「경진(庚辰)에 대부도(大府島)의 별초(別抄)가 밤에 인주(仁州;인천) 근처의 소래산(蘇來山) 아래에 나아가 몽고 병사 1백여 인을 격파하여 도망가게 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대몽 승전지로서 민족의 운명,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해왔던 소래산에 왜정 시대에는 명산의 지기를 끊는다는 명목으로 소래산의 혈자리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도 전해내려 온다.¹³⁾

여러 측면에서 당시 이 지역 산에서 봉화 시위가 벌어졌다면 소래산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3) 시흥장수신문, 2009.5. 7, 「워낭소리의 추억-신천동 뱀내장터 마을」
www.shjangsu.com/3875



1. 시흥지역의 3·1운동



3·1운동 당시, 전국 여러 산에서 봉화시위가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넓은 장터 역시 장날 등을 이용해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1770년 발간된 『동국문헌비고』에도 기록이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뱀내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황어장과 수원장을 연결하는 경기 서남부 일대의 대표적 우시장이었다. 뱀내장에서는 두차례의 3·1만세운동 기록이 발견됐으나, 소래산의 경우 봉화시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1. 시흥지역의 3·1운동

시흥군 수암면 3·1운동

수암면에서는 1919년 3월 30일, 2천여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비립동 혹은 비석거리(현 안산시 안산농협 수암지점 뒤편)라 불리던 곳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 가운데 군중을 지휘하며 앞장섰던 20대 청년이 있었으니 윤병소, 윤동욱 지사다.

홍순철, 류익수, 김병권, 이봉문 등의 독립지사가 함께 한 이날 시위에 대해 일제는 이렇게 적었다.

“사법경찰관의 보안법 위반자 연행보고 중에, 3월 30일 수암면 내의 18개 리(里)의 리민 약 2천 명이 수암경찰관주재소의 서쪽 밭에 모여서 큰 기류를 떠받들고 각자는 작은 기를 가지고서 ‘수암주재소·면사무소를 불태워버리자’고 외치면서 동 관청에 몰려가 일변 만세를 부르고 불온행동을 하므로 우리들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역시 이에 순응하지 않으므로 거짓 사격태세를 취하여 겨우 해산시켰다.”¹⁴⁾

이날 시위를 주동했던 여섯 명의 독립지사 판결문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한다. 흥분한 군중들,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자는 분위기, 거짓 사격태세를 취하고서야 겨우 해산시켰다는 사법경찰관의 보고는 수암면의 3·1운동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4) 윤병소 등 판결문, 1919.5.27, 경성지방법원(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1. 시흥지역의 3·1운동

당시 수암면에는 18개리에 1592가구, 8120명이 살고 있었다. 노인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성인의 절반 가량이 이날 시위에 모인 셈이다.¹⁵⁾ 시위 하루 전날인 3월 29일 격문(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인편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주민 가운데 2천여 명이 만세를 부른 것이다.

“해산하라! 그러지 않고 읍내로 갈 때는 발포할 지도 모른다”¹⁶⁾는 순사들의 위협에 한때 옥신각신 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이들은 비석거리(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 1길)를 시작으로 보통학교(현 안산초등학교), 경찰관 주재소(현 안산교회), 면사무소(현 안사객사 자리)를 지나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향교(공자묘)까지 행진하며 독립을 염원하고 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 도중 조선인 순사에게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했다는 윤동욱 지사의 일화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큰 울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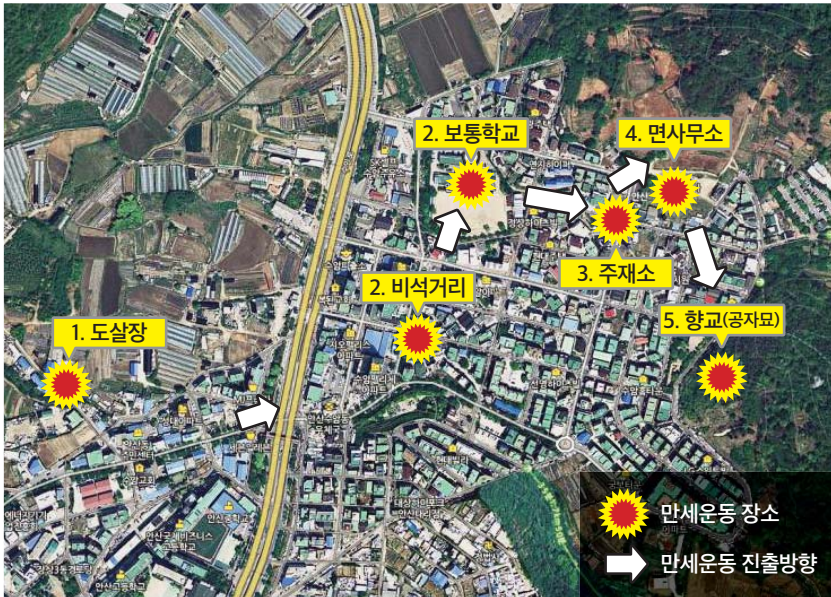
3·1운동 당시 능곡리에 살던 윤병소는 스물일곱, 산현리에 거주하던 윤동욱은 스물아홉 살이었다. 두 지사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5) 안산문화원, 2019, 『수암면의 3·1운동』 『청소년을 위한 안산의 독립운동 이야기』, 53쪽

16) 윤병소 등 판결문, 1919.5.27, 경성지방법원(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1. 시흥지역의 3·1운동



1919년 당시 수암면 3·1운동의 시위 경로

(출처 : 이병권, 2015, 『시흥군 수암면 3·1운동과 운동록의 사상』)



1. 시흥지역의 3·1운동

시흥군 군자면 3·1운동

군자면에서는 3월 29일 장곡리와 월곶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만세운동이 이어졌다.

3월 29일 장곡리·월곶리 만세시위

<개요>

3월 29일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와 월곶리에서 각각 약 100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마을 외에도 같은 날 군자면 거모리 부근 거모경찰관주재소 관할 구역 7군데에서 각각 약 100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세부장소>

長谷里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장곡리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비고>

자료의 '去毛(거모) 부근 7개소'라는 표현을 참고하면 3월 29일 시흥 군자면에서는 여러 동리에서 시위가 산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去毛 부근'의 거모는 去毛경찰관주재소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장곡리 이외에는 동리가 특정되지 않으며 인접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1. 시흥지역의 3·1운동

참가자 수 추정 : 200 ~ 700

去毛 부근 7개소 각 100명씩이라는 조선군참모부 작성 자료가 있는데 해당 군자면 지역에서 확인되는 시위는 장곡리, 월곶리 등이며 개람표 자료 등에 각 100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⁷⁾

3월 31일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에서 다수 군중이 군자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했으며 거모경찰관주재소에서 경비를 서던 군대가 이들을 해산시켰다.¹⁸⁾

4월 4일에는 거모리에서 1000명 이상의 민중과 스물세 살의 청년, 김천복 지사가 참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영등포경찰서에서 경관과 보병 13명을 파견했으며 공포탄을 발사한 후에야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었다는 일제의 기록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4월 4일 거모리 만세시위

<개요>

4월 4일 낮에 시흥군 군자면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이 거모경찰관주재소와 군자면사무소를 돌며 구한국기를 흔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3일 시흥군 군자면 각지에는 거모리 경찰관주재소와 군자면사무

17) 3월 29일 경기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만세시위, 사건정보, 삼일운동DB(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작성자 : 허영란)

18) 3월 31일 경기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 만세시위, 사건정보, 삼일운동DB(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작성자 : 허영란)



1. 시흥지역의 3·1운동

소를 불태우기 위해 면민 전부가 주재소 앞에 모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협박장이 배포되었다. 같은 내용의 벽보가 발견돼 영등포경찰서에서 경관 6명과 보병 7명을 파견하여 경계에 들어갔다.

4월 4일 오전 11시 거모경찰관주재소 부근에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여 구한국국기를 흔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군자면 거모리에 접해 있는 죽율리에서도 이 마을 농민 김천복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거모리 면사무소로 모이라’고 선동하여 30명가량이 마을 이장 집에 모인 다음 거모리로 향했다. 이동 중에 충성이 들리자 대부분 흩어졌으나 김천복 등 2~3명은 거모리로 와서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와 주재소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군경은 공포탄을 발사해 오후 2시경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시위 세부장소〉

去毛里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君子面事務所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去毛警察官駐在所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去毛里)

거모리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군자면사무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거모경찰관주재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1. 시흥지역의 3·1운동

<참가자 수 추정>

참가자 수 : 1000 ~ 1500

대부분의 일제 보고 자료에 1000으로 기재, 일람표 자료에 1500으로 기록¹⁹⁾

4월 6일 장현리 ‘비밀통고’

4월 6일 장현리에서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서당생도 권희와 동갑내기로 농업에 종사하던 장수산 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과 실천이 뒤따랐다. 153.9cm²⁰⁾의 작은 키, 앳된 얼굴의 권희는 자신의 집에서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의하고 집필했다. 권희는 이 격문을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했으며, 장수산은 이를 같은 동리 구장의 조카 이종영(李鐘榮)의 집 앞에 놓아두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돌려보게 함으로써 조국 독립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켰다.

이 격문은 글을 아는 사람이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주기도 하는 등 손에 손을 거쳐 장곡리를 지나 월곶리까지 보내졌다.

1919년 4월 6일 경기도 시흥시 군자면 장현리에서 권희는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양성하고자 자택에서 ‘비밀통고’라는 제목으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래 10년간의 학정에 벗어나 이제부터 독립하고자 하니, 각 주민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내일 7일 군자면 구(舊)시장에 구한국기 한 개씩을 휴대하고 나와 모일 것, 많은 사람을 결속

19) 4월 4일 경기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만세시위, 사건정보, 삼일운동DB(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작성자 : 허영란)

2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9,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자료집 제2권』, 224쪽



1. 시흥지역의 3·1운동

시켜 시위운동을 일으키자'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1통을 작성하여 면내 각 이장 앞의 봉투에 넣었다. 그 결과 장곡리, 월곡리, 중율리(죽율리), 군자리, 거모리 각 구장이 회람하게 했다. 또한 장수산은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 가며 볼 수 있도록 장곡리 이종영의 집 앞에 놓아두었다.²¹⁾

4월 7일 석곡 산대장²²⁾에서 벌이려던 만세운동은 '비밀통고'를 압수한 일본 경찰에 의해 사전 발각됐고 권희·장수산 지사는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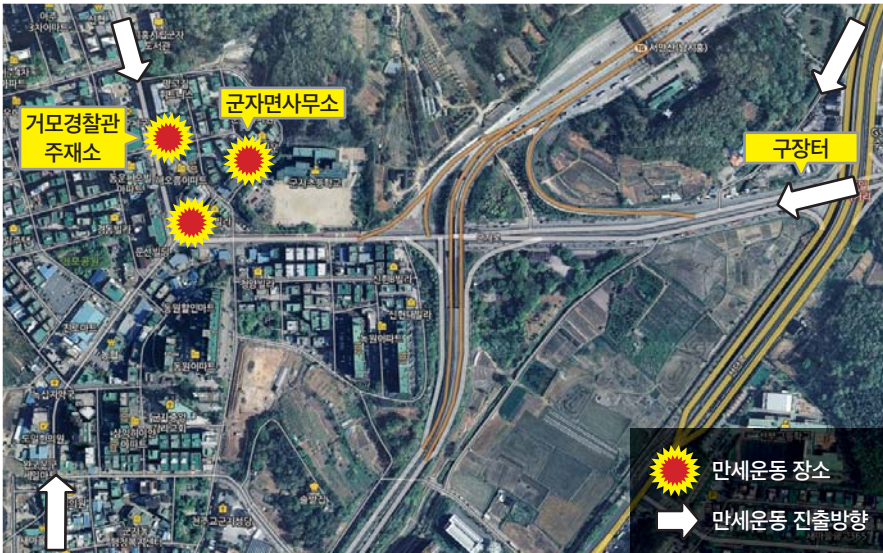
글 유서원

21) 권희 등 2명 판결문, 사건정보, 삼일운동DB(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

22) 앞의 권희 등 2명 판결문에 등장하는 '군자면 구시장'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안산관내 최초로 들어선 오일장으로 3·8일에 장이 섰다.



1. 시흥지역의 3·1운동



1919년 당시 군자면 3·1운동 시위 경로. 지도에 표시된 장소 외에 장곡리와 월곶리에서도 각각 3·1운동이 일어났다.
(출처 : 이병권, 2017, 「시흥시 장시와 민족해방운동」)

여 백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3·1 100

잊을 수 없는

잊어선 안 되는

권희

김천복

윤동욱

윤병소

장수산

권 희

權 禧

1900 - 1955

서당을 박차고 나와 외친
스무 살 청년의 절규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봉분 없는 묘비

늦겨울과 초봄 사이에 과거 시흥군 군자면이었던 장현리 두일마을을 찾아갔다. 지금은 그곳이 시흥시 장현동으로 장현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되어서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지사의 생가가 있던 장현리 417번지에 도착했지만 붉은 황토 흙만이 눈에 강렬하게 들어올 뿐이다.(124쪽 사진 참조) 집터는 이미 구획정리 작업으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옛 마을이었던 곳에는 고층 아파트가 산처럼 우뚝 우뚝 시간을 따라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두일마을과 생가터 주변은 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지사가 독립만세를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하던 중 일본군사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던 장발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머리 원두막에서의 일은 생가터 동쪽에 자리한 옥녀봉(玉女峰)만이 그때의 희망과 절망으로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다시 남쪽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여름, 몇 번에 걸쳐 나무와 칙닝쿨이 엉겨 있는 수풀 사이를 겨우 헤치고 들어가서야 지사의 묘역을 찾을 수 있었다. ‘대한독립의사(大韓獨立義士) 안동권공휘희부군지묘(安東權公諱禧府君之墓)’라는 묘비가 외롭게 서 있다. 봉분은 없다. 어찌된 일인가? 지사의 조카인 권용학(73)씨는 “개인적으로 묘를 관리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국립현충원의 충혼당으로 모셨죠”라며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108실 168호로 2016년 6월 1일에 이장을 한 배경을 알려주셨다. 봉분 없는 묘비만이 지사의 애국 독립 의지를 간직한 채 하늘과 땅을 향해 절규하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권희 지사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의 <삼일운동 재판기록>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재판은 보안법 위반으로 권희 지사는 징역 1년, 장수산 지사는 징역 10월을 받았다.²³⁾

23) 당시 판결 이유는 이 책 38쪽 인용문 참조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사전 발각... 모진 고문... 끝모를 감시

세월이 흘러 광복이 되고 1955년에 권희 지사는 세상을 등진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1990년에서야 3·1운동과 관련된 국가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건국훈장 애족장의 포상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공훈록>에 기록된 권희 지사의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 시흥(始興)사람이다. 1919년 4월 6일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장현리(長峴里) 자신의 집에서 “일제의 학정에 대해 항거하기 위하여 4월 7일 군자면(君子面) 구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니 참가하라”는 비밀통고서인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인근 각 동민에게 회람시키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권희 지사는 1900년에 태어나 사서삼경 등 한학을 공부하였고, 서당 훈장님이었던 권연(權衍)의 영향으로 약관의 나이인 20살에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려다가 사전에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갇은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고문을 당하고 1년의 징역살이를 하셨다. 감옥에서 출소한 뒤로는 육체적으로 고문의 후유증과 요시찰 인물로 감시대상이 되어 부자유한 삶을 살다가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다.

권희 지사의 서당 훈장이었던 권연의 손자인 권창(89) 어르신은 집안 어른들께 들었다고 하면서 ‘나이가 20살인데 감옥소에 갓잖아. 일본놈들이 애를 못 낳게 감옥소에서 훑었어’라며 권희 지사의 모진 고문에 얹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다. 아울러 지사의 나라 사랑 정신이 후대 사람들에게 온전히 계승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이런 마음이 이심전심일까? 내 마음에도 그의 마음이 들벌처럼 번져든다.



권희 지사 훈장과 훈장증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일제강점기 암울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대한 청년의 기개로써 민족의 미래를 살리려 했던 애국 청년 권희. 그의 삶의 궤적을 찾으면서 문득 도산 안창호 지사의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말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니 우리 장현동 사람들이, 우리 시흥 시민들이 무엇인가 해야 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었은 많겠지만 우선 지사의 생가터 또는 옛 마을에 독립유공자 표지석이든지 기념조형물이라도 반듯하게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글 심우일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한겨레신문>

시흥에 살던 서당 생도 권희(19) 역시 기존의 국한문 혼용 독립선언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통고문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이 회람할 수 있게 마을 어귀에 놓아뒀다. 어려운 현안이 생겼을 때 누리꾼들이 이해를 돕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과 닮아 있다.



한겨레신문 2019년 3월 1일자 「한겨레가 뽑은 독립운동 '민중 대표' 48인」 맨 위 첫번째에 소개된 권희 지사.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 권희 서대문형무소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20000

氏 名	年 齡	4 年 0 月 18 日 生	指 紋 番 號
身 長	5 尺 0 寸 8 分		87777
特 徵			No. 18777




앞면

項 事 刑 受				身 分	住 所	出 生 地	本 籍
及 其 事 由	出 獄 年 月 日	執 行 監 獄	官 渡 裁 判 所	罪 名	刑 名	刑 期	官 渡 年 月 日
滿 期 出 獄	大 正 九 年 十 月 八 日	西 大 門 監 獄	東京 關 東 監 獄 法 院	懲 役	禁 錮	一 年	大 正 八 年 九 月 二 日
考 備				職 業	前 犯		
東京 關 東 監 獄 法 院 大 正 八 年 九 月 二 日				職業 未 詳 前 犯			

뒷면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 권희 판결문 원문 (출처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判決文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六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判決原本
四條地ノ二 農業 与宗教
張 壽 山
八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六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判決原本
四條地ノ二 農業 与宗教
張 壽 山
八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六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判決原本
四條地ノ二 農業 与宗教
張 壽 山
八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六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判決原本
四條地ノ二 農業 与宗教
張 壽 山
八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六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判決原本
四條地ノ二 農業 与宗教
張 壽 山
八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六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判決原本
四條地ノ二 農業 与宗教
張 壽 山
八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六月二十一年
本稿目付和未敵通伯器郡君子而長
岷里需堂生徒儒教授
權 愷
判決原本
四條地ノ二 農業 与宗教
張 壽 山
八月二十一年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판결문 번역

※ 판결은 권희, 장수산 등에 대해 동시에 선고됐다.
아래 내용은 그 중 권희 지사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판결

본적·주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장현리(長峴里)
서당 생도(유교도) 권희(權禧) 6월 18일생 20세
상기자들에게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타마나 토모히코(玉名友彦)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권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각각 제출인에게 반환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제국(일본) 통치의 굴레를 벗고 조선국을 수립하려는 뜻을 외친 이래로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자 이에 찬동하여 피고들의 동리에서도 역시 많은 이만을 선동 그 운동의 기운을 빛어 내려고 하여 동년 4월 6일 전기 피고 권희 집에서 그 피고의 발의 집필로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 아래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고, 또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명 7월 이 먼 구 시장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이민은 구 한국기 1개씩을 휴대하고서 와서 모이라'는 취지의 정치에 관하여 붙은 문구를 기재한 문서 1통(중 제1호)을 작성한 후 이민들에게 회람시킬 목적으로 피고 장수산이 이를 같은 동리의 구장의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놓아 두고 각 이민에게 회람시켜 많은 이민들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1. 당 공판정에서 말한 피고 양인이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자백
2.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종진(李鍾振)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²⁴⁾ 오후 3시 경 발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君子里)에 접근된 장곡리 남쪽 고개 길 노변에 봉투 속에 1통의 문서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대로 들어 있었다. 자기는 글자를 모르므로 이종형(李鍾亨)이란 자에게 읽어 달랬더니 "4월 7일 만세를 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 사발통문(沙鉢通文)이라고 하며 그는 이것을 장곡리 이장 이덕증(李德增)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3.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덕증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 오후 6시 경 이민 이응수(李應洙)가 이종형으로부터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하며 비밀통고문 1통을 자기에게 주므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읽어 보니까 "오는 7일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부를터이니 구 시장 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모여 오지 않는 자는 후일 위해가 있을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자기는 후환이 두려워 곧 그 문서를 지정되어 있는 이윗 월관리(月串里)²⁵⁾ 구장 앞으로 사환을 시켜서 보낸 일이 있다. 증 제1호는 즉 그 비밀통고문이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가 있는 것과,
4. 압수된 비밀 통고문 1통(중 제1호)이 현존하는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그 경한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그 형의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할 것이며, 압수물건은 물수에 걸리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거 각각 제출인에게 반환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e-gonghun.mpva.go.kr)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24) 판결문 앞부분에서는 4월 6일 권희가 집에서 비밀통고를 작성했다고 적시한 데 반해, 이종진과 이덕중의 증언을 보면 4월 5일 비밀통고를 발견하거나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이거나 판결문 작성 과정의 실수일 수도 있으며, 4월4일 거모리에서 벌어졌던 만세운동 전에 돌던 격문과의 혼동일 수도 있다.

25) 월관리는 월곶리의 오키다.

김 천 복

金千福

1897 - 1968

일제의 총부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

김천복 지사는 유독 강직하고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전하는 에피소드에도 이런 성향이 묻어나며, 특히 3·1운동 당시 지사가 남긴 말과 행동 속에서 두드러진다.

1919년 4월 4일 군자면 죽울리,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키던 스물 셋의 청년 김천복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거모리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 “만약 불응하는 때는 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을사람 30명을 구장 집에 모은 후 거모리를 향해 나아갔다.

전날인 4월 3일, 군자면 각지에 ‘거모리 경찰관주재소와 군자면 사무소를 불태우기 위해 면민 전부가 주재소 앞에 모일 것’이라는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내용의 벽보가 배포됐고, 이를 발견한 일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경관 6명과 보병 7명을 파견한 상태였다.

예고대로 4월 4일 오전 11시 거모경찰관주재소 부근에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김천복이 이끌던 죽울리의 시위대가 거모리로 향하던 중 총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김천복은 다른 주동자 2~3명과 함께 거모리에 집결한 군중들과 합세해 면사무소와 주재소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 군경은 공포탄을 발사해 오후 2시경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김천복은 이날의 만세운동 주동자로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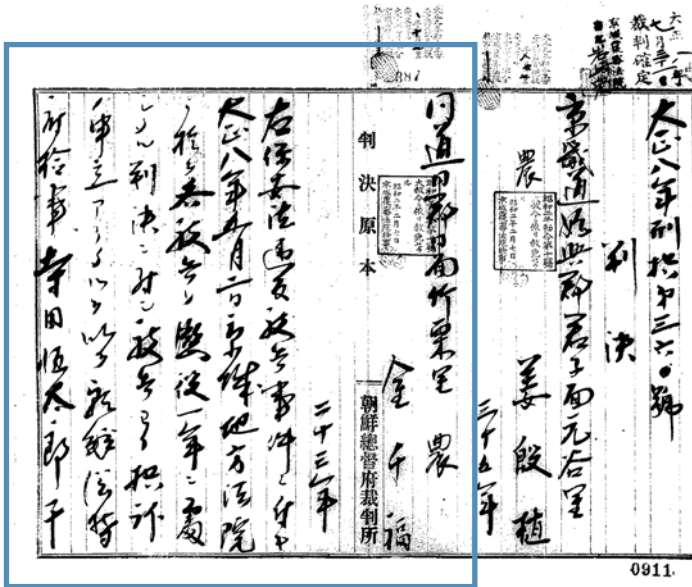
한국전쟁 후 행방불명

우여곡절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곧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겨우 휴전이 됐지만 김천복 지사는 행방불명되고 만다. 총소리에 놀라 모두가 물러설 때 앞으로 나아가 만세운동을 불렀던 지사의 기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준 그의 마지막 행적. 지사는 2008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또 시흥시는 2018년 7월 생금어린이공원(죽울로 45-32)에 독립지사 김천복 기념비를 세우고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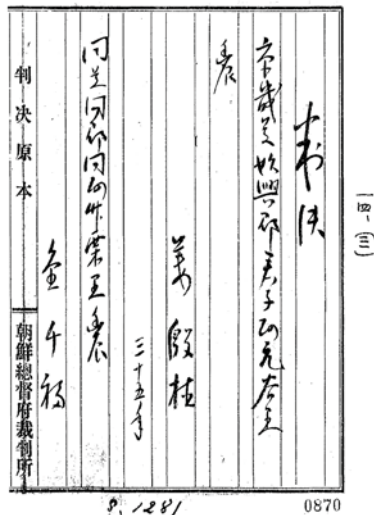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 김천복 판결문 원문 (출처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2
22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판결문 번역

※ 판결은 강은식, 김천복에 대해 동시에 선고됐다.
아래 내용은 그 중 김천복 지사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판결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승률리(升栗里)²⁶⁾
농업 김천복(金千福) 23세
위의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 에이로쿠(千綿榮六) 관여로 판결
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양인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천복은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 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동월 4일 동면 승률리 이민에게 대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위의 거모리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고 권하여 이들을 선동한 후 이민 약 수 십 명을 모아서 거모리로 향하여 전진 중, 군중은 총 소리를 듣고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동 피고는 2, 3명과 함께 그 동리에 이르러 위의 면사무소 및 주재소 부근에 집합한 수 백 명의 군중에 가담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행동을 하여 안녕 질서를 파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들이 당 법정에서, 피고 천복이 '자기는 판시함과 같이 이민을 선동한 일이 없다'고 변명한 것 이외에 당해 판시와 동일한 취지를 공술한 것, 피고 천복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의 신문조서 중, '자기는 판시일 이민에게 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하여 면사무소로 가라. 만약 불응하는 때는 후환이 있을 것이다"'고 하여 이민 30명을 이장 집에 모은 다음 모두 같이 거모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들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의 범행 후에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산·구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경하므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그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할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²⁷⁾

(참고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e-gonghun.mpva.go.kr)

26) 승률리(升栗里)는 죽율리(竹栗里)의 오기다.

27) 「삼일운동 재판기록-농업 강은식 35세 등 판결」 중 김천복 부분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e-gonghun.mpva.go.kr)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딸 **김화진**이 기억하는 김천복 지사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등 전체에 고문 흔적 끔찍한데도
자식들에겐 다정했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엄청 다정했어요.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상기된 표정으로 부친을 떠올리는 김화진(인천광역시 학의동·1939년생) 씨.

김화진 씨가 여섯 살 되던 해 김천북 지사 가족은 일명 똑딱이라 부르는 똑딱선을 타고 현재의 화성시 행도로 이사 갔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죽울리에 사는 고모 집과 조구나리(현재의 월곶동)의 삼촌 집을 간간이 왕래했다고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부친은 시흥에서 김포로, 김포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자주 다녔다. 당시 재력가였던 6촌 동생 김청환 씨가 형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도의 작은 돌산 관리하는 일을 부친에게 맡겼다고 한다. 이곳에서 김천복 지사는 채석, 운반, 판매 등의 총 관리업무를 했다.

농사도 부지런히 지었다. 자식들 골고루 챙겨 먹이려고 참외, 수박, 토마토 등 채소부터 푸성귀까지 쉴 새 없이 몸을 놀렸다.

김 씨가 7살이던 해, 때 아닌 돌풍이 불었다. 해방이 되던 해라 많은 사람들이 ‘해방바람’이라고 기억할 만큼 거센 바람이었다. 형도에서도 커다란 아카시나무가 쓰러지고 농작물이 엉망이 됐다. 참외, 수박, 오이들이 밭고랑에서 굴러다녔다. 부친은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은 과일을 골라내 자식들에게 먹였다. 손수 기른 닭에 인삼까지 사다 넣어 보양식을 챙겼다. 늦게 본 자식들인지라 유독 건강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그녀의 기억 속 부친은 정이 많던 분이다. 큰소리로 야단을 치지도 않았고 엄하게 훈계를 하지도 않았다. 매를 들었던 기억은 전혀 없다. 다만 고집부리고 청얼거리고 있던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너, 그럴래?”하고 딱 한마디 했던 것이 전부였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천자문을 가르치기도 하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마흔이 넘어 재혼해 얻은 자식이니 더욱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어린 아들의 이마를 수탉이 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들 이마의 상처를 보고 그 길로 수탉을 잡아서 고아 먹일 만큼 자식을 애지중지했다. 술을 좋아했으나 주사를 부리지 않았고 욕 한마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디도 못하던 호인이었다. 죽울리에서 쪽배를 타고 친척과 친구들이 부친을 만나러 오갔다. 형편이 나아져 집에서 막걸리를 담가놓고 손님을 맞이할 정도의 살림살이는 됐다.

그런 부친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김 씨가 열네 살이 되기 두어 달 전, 식량 배급을 타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삼촌들과 모친이 사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것이 부친 김천복 지사와의 마지막이었다.

부친이 돌아오지 않자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부지런하게 가꾸은 살림살이마저 하나씩 팔려 나갔다. 더욱 부친이 간절히 생각나는 세월이었다.

그녀가 회상하는 부친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다. 얼굴이 가름하고 왼쪽 뺨 아래 옆으로 혹이 있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었다. 그 혹은 태생적으로는 없던 고문의 흔적이었다. 고문으로 뼈가 튀어나온 것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에 부친의 등을 긁어 줄 때면 등에 난 상처가 끔찍했다. 인두로 지진 자리가 인두 모양 그대로 남아있고, 달근 쇠꼬챙이로 지진 흉터가 등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부친은 유달리 등이 가렵다는 말을 많이 했다.

고모(김천복 지사의 여동생)는 한 번씩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우리 큰 오라버니가 형무소에서 나오던 날 동네 잔치했어. 독립운동한 장한 사람 돌아와서 환영한다고.”

출소 후에도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 3년간 감옥살이를 더했던 부친은 해방 후에도 일제의 잔재라면 치를 떨었다.

“왜정 때 형도에 화학공장이 있었어. 앞에 총을 쏘는 군인 동상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오함마(큰 망치)를 들고 가서 다 깨부숴. 며칠 동안 공장도 다 부숴.”

그는 하다못해 철로 만든 삼태기까지 다 찢어 버렸다. 물건을 나를 때 요긴하게 쓰일 물건이었지만 부친은 그냥 두고 보질 못했다.

하루는 부친의 친구인 권대철이라는 분이 건너 동네에서 찾아왔는데 갑자기 둘이서 벼짚을 들고 나가더니 불을 피우고 막걸리를 붓고 절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구 선생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행한 의식이었다.

하루아침에 너무도 허망하게 날벼락처럼 부친을 잃었지만 그녀는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마냥 부친을 그리워할 수만은 없는 현실 속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워냈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딸이 늘 가슴으로 그리워하던 부친은 세월이 흘러 사망자로 처리됐고 애처로운 그리움으로 가슴 한편에 묻어야 했다.

어느 날 친척이 시흥시에서 발간한 책을 보고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라고 했다. 새삼스레 부친 생각이 간절해지는 시간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부친 사진을 찾았으나 소실되고 없어 더욱 안타까움이 컸다.

누구보다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김화진 씨. 부친의 고문 현장인 서대문형무소 안에서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 길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이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도 받았고 시흥시에서 기념비까지 세워 묘소 찾듯이 기념비(125쪽 사진 참조)를 찾는다는 그녀. 아버지가 그리우면 찾아갈 곳이 있고 현관 문에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부착물도 있으니 가슴 뿌듯하다.



글 박종남 사진 안영우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조카 **김윤진**이 기억하는 김천복 지사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백부는 형사 피해 만주 가서도
독립운동 하다 옥살이 하신 분

“시흥군 군자면 죽울리 대암이라고,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김천복 지사가 태어난 마을은 김녕 김씨와 순흥 안씨 집성촌으로 현재의 죽울동 생금집 바로 옆이다. 김윤진(인천광역시 관교동·1933년생) 씨는 백부 김천복 지사에 대한 기억을 담담히 회고했다.

5살에 함께 달월 구능뿌리(현재의 월곶동)로 이사를 갔고, 그 즈음 백부가 귀한 세발자전거를 사줘서 방안에서 탔던 기억이 있다. 장난감 공기총도 사다줘 신나게 놀다보니 방안 천정을 뽕뽕 뚫어버린 추억도 있다. 당시 자식이 없던 백부는 조카를 위해 장난감을 사다주는 등 자상함이 남달랐다.

4형제 중 특히 김 씨 부친과 우애가 두터웠던 백부였다. 어릴 적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부친은 백부의 3·1운동에 대해 들려했고, 형무소를 나와서도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형사들이 쫓아다니니 피신하느라 가족들 건사는 못하지, 어차피 독립운동을 하려면 만주로 가야겠다 하고 건너 갔지.”

김천복 지사가 만주에서 3년의 감옥살이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부친은 가슴 아파했다.

김윤진 씨가 백부에 대해 기억하는 또 다른 추억도 있다. 9살 무렵으로 짐작된다. 어느 여름날, 하루는 손님들이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반주와 함께 닭백숙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구수한 닭고기 냄새와 함께 분위기까지 좋아 보여 어린 마음에 그 자리를 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늘 챙기던 조카였지만 백부는 끝내 그를 부르지 않고 자리를 파했고 군침만 흘린 그는 닭고기 대신 야속함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장성해서야 그 자리에서 중요한 비밀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제야 백부를 이해하고도 남았다고 서운함을 지녔던 과거가 부끄러웠다고 했다.

해방된 나라에서 백부는 육촌이 소유한 돌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형도라 불리는 화성시의 작은 섬이었다. 김윤진 씨는 그곳에 갔던 날 하필 백부가 집을 비워 사촌 동생들이 감자를 캐서 삶아줬다며, 이 날이 백부를 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놓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그 후로 백부를 만나지 못했다. 자신의 부친을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비롯한 김천복 지사 형제들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백부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2008년 김천복 지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고 시흥시에서 독립유공자 가족을 찾아 위로하면서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서서히 자긍심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한다.

조카를 사랑으로 품어주던 ‘나의 백부’에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김천복 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글 박종남 사진 안영우



윤 동 욱

尹東旭

1891 - 1968

대쪽 같은 강직함으로
평화적 만세시위 주도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안산윤씨’로 불린 명문가 후손

시흥의 독립지사 윤동옥은 1891년 9월 1일, 현 시흥시 산현동에서 아버지 윤승덕, 어머니 이덕필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경재(敬載), 호는 학은(鶴隱)이다.

한양과 가까운 시흥 지역에는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이 선산을 모시거나 일가가 거주하는 일이 많았다.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과 효자로 이름난 그의 아들 하우명, ‘전당홍(錢塘紅)’ 연꽃 씨를 들여와 관곡지에 심은 강희맹, 조선의 4대 문장가로 칭송받는 장유와 그의 딸인 효종비 인선왕후가 모두 시흥에 근거지를 둔 인물이다.

윤동옥의 집안도 산현동 깨꽃마을에 자리 잡은 명문가였다. 연산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군 때 정삼품 벼슬을 지낸 윤승유의 묘가 이곳에 정해진 뒤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파평 윤씨 마을이 되었다. 윤승유의 아들 윤섭이 성종의 딸인 정숙옹주와 혼인함으로써 집안은 왕실과 인척 관계가 되었다. 후손인 윤민현은 광해군 때 벼슬을 지낸 인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벼슬에서 물러나 산현동에 거주했다.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윤지완은 청백리로 이름이 높은 인물이었다. 윤동옥은 윤지완의 직계 후손으로 학문이 높은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아 열두 살이던 1902년부터 1911년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익혔다.²⁸⁾

윤동옥은 3월 30일 일이 있어 고개 너머 화정리에 갔다가 능곡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비석거리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비석거리는 지금의 안산농협 수암지점과 안산초등학교 사이로, 옛 안산 관리들의 공덕비가 서 있던 곳이다. 면사무소, 주재소, 보통학교, 향교 등이 밀집한 읍내 중심가로 갈 때의 길목이기도 했다.

윤동옥이 비석거리로 달려갔을 때 군중은 이미 2천여 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전날부터 돌던 ‘비립동으로 모이라’는 격문을 보고 수암면 18개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밭에 대형 태극기 두 개를 세우고 사람들 손에는 각자 작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다. 와리의 홍순철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온 태극기였다. 윤동옥과 홍순철 외에 윤병소(능곡리), 유익수(월피리), 김병문(화정리), 이봉문(수암

28) 이병권, 2015, 『시흥군 수암면 3·1운동과 윤동옥의 사상』 『경기향토사학 제20집』 292~293쪽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리) 등이 주민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을 보고 순사들이 “해산하라. 만약 해산하지 않고 읍내로 간다면 발포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사격자세로 위협했다. 그만 해산하자는 사람과 흩어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맞서 잠시 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논쟁도 잠시, 군중은 곧 하나 되어 읍내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윤동옥이 사람들 앞에서 기세를 돋우며 격려했고 유익수와 윤병소도 태극기를 휘두르며 함께 했다. 훗날 체포된 홍순철은 경찰 신문에서 이 광경을 두고 사람들이 “눈사태가 난 듯이 가게 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비석거리를 나서 주재소, 보통학교, 면사무소, 향교로 행진하며 만세를 불렀다. 시위대가 보통학교 앞에 이르렀을 때, 윤동옥은 조선인 순사 임건호와 대면해 “당신도 조선 사람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했으나 임건호는 응하지 않았다. 윤동옥은 순사에게 만세를 강요한 이유를 뒷날 경찰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관리가 만세를 부름은 시위운동을 승인케 하고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서 순사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였다.

__비석거리 시위 판결문 가운데 윤동옥의 신문 조서에서 발췌



“국유재산, 상하게 하지 마시오”

또한 윤동옥은 만세운동을 평화 시위로 이끌었다. 흥분한 군중이 “주재소를 불태우자, 면사무소를 불태워 버리자!”고 외칠 때 윤동옥은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하면 관공서는 국가의 재산이 되요. 그러니 국유재산을 털끝만큼이라도 상하게 하지 마시다.”라며 이들을 만류했다. 군중도 윤동옥의 말에 따라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나갔다. 비석거리 만세운동을 함께 지휘했던 유익수도 비폭력 운동을 위해 애썼다. 유익수는 월피리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30일 비석거리 만세운동에 이어 다음날 반월장터 만세운동에서도 군중을 이끌며 국가 재산을 파손하지 말고 정의로운 독립을 위해 신중히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벌인 평화 만세운동이 끝나고 일제는 주동자 색출에 나섰다. 4월 5일 윤동옥, 홍순칠, 유익수, 윤병소, 김병권, 이봉문 등이 보안법을 이유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윤동옥은 시위를 주도하고 순사 임건호에게 만세를 권유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 369번지’에 본적을 둔 농업에 종사하는 29세의 윤동옥은 신문 과정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만세를 부른 것은 조선독립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비석거리 시위 판결문 가운데 윤동옥의 신문조서 내용에서 발췌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윤동옥은 5월 2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7월 31일 재심 결과는 태형 90대였다. 태형은 사람의 몸에 매질을 하는 가혹한 형벌로, 근대에 들어 인권 존중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신체형은 거의 사라졌고 조선도 갑오개혁기에 태형을 폐지했다. 일본 역시 유럽의 영향으로 신체형을 폐지했으나 조선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조선태형령’을 제정했다. 태형을 가하면 조선인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조선인을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태형 제도는 3·1만세운동에 놀란 일제가 이듬해부터 문화통치를 실시하며 비로소 폐지되었다.

참혹한 형벌을 받은 윤동옥은 서울에서부터 집까지 남의 등에 업혀서 돌아왔다. 윤동옥의 손자 윤성준은 어려서 본 할아버지의 옷 뒤태는 언제나 엉망이었다고 증언했다.

윤동옥은 1968년 10월 2일, 산현동 자택에서 77세를 일기로 타계하고 선대의 묘가 있는 개꼴마을에 안장되었다.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윤동옥 지사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위풍당당함이 느껴지는 윤동옥 지사의 생전 모습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 윤동욱 판결문 원문 (출처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大正八年三月三十日判決第五八一號
 洪恩道始興郡赤岩面長
 洪恩道始興郡赤岩面長
 柳益新
 同進同郡同面長里農
 洪淳七
 同進同郡同面長里農
 李奉文
 同進同郡同面長里農
 尹東旭
 同進同郡同面長里農
 金秉權
 右ノ第一對ノハ係違法違反被告
 事涉。村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
 0516

三
 三

一郎干與審理判決スルト左ノ如シ
 主 文
 被告折孟馬ヲ懲役一年六月
 被告洪淳七ヲ懲役一年ニ被告
 尹東旭又李奉文ヲ懲役十月
 被告尹東旭ヲ懲役八月ニ被告
 金秉權ヲ懲役六月ニ懲ス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理由
 被告大正八年三月三十日始興郡赤
 岩面長里ニ於テ全面氏々朝鮮獨
 立運動ヲ開始スヘキコトヲ聞知セシヨリ
 今日全里碑立洞ニ赴キ全折ニ參集
 セルニ餘ノ群衆ト共ニ朝鮮獨立
 萬歲ヲ絶叫シテ、馬岩面内ノ面

0501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판결문 번역

※ 판결은 윤병소, 홍순철, 유익수, 윤동욱, 김병권, 이봉문 등에 대해 동시에 선고됐다.
아래 내용은 그 중 윤동욱 지사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판결

주소·본적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山峴里) 369번지

농업 윤동욱(尹東旭) 당 29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아마자와 사이치로우(山澤左一郎)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유익수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 홍순철을 징역 1년에, 피고 윤병소 및 이봉문을 징역 10월에 피고 윤동욱을 징역 8월에, 피고 김병권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에서 그 면 사람들이 조선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날 같은 동리 비립동(碑立洞)에 가서 그곳에 모여 온 2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수암면 읍내에 있는 면사무소·보통학교 및 공자묘(孔子廟) 앞으로 몰려가서 극도로 소란을 피웠는데, 그 중 피고 유익수와 윤병소는 위 군중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군중을 지휘인솔하여 모두 조선독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전기 불온거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1. 사법경찰관의 보안법 위반자 연행보고 중에, '3월 30일 수암면 내의 18개 이의 이민 약 2천 명이 수암경찰관주재소의 서쪽 밭에 모여서 큰 기류를 떠받들고 각자는 작은 기를 가지고서 "수암주재소·면사무소를 불태워버리자"고 외치면서 동 관청에 몰려가 일변 만세를 부르고 불온행동을 하므로 우리들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역시 이에 순응하지 않으므로 거짓 사격태세를 취하여 겨우 해산시켰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윤동욱에게 대한 제2회 신문조서, '금년 3월 30일 불 일이 있어서 수암면 화정리에 갔다가 능곡리 이민으로부터 "비립동에서 만세를 부른다"는 것을 듣고 그 곳에 갔더니 약 1천 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 때 순사가 "해산하라! 그러지 않고 읍내로 갈 때는 발포할 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모인 군중 속에서도 해산하자는 자도 있고 하지 말자는 자도 있어서 한때 분규를 일으켰으나 결국 모두가 읍내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으므로 자기는 선두에 서서 군중의 기세를 돋구면서 읍내의 주재소·보통학교·면사무소 등의 앞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자기는 공립 보통학교 앞에서 순사 임건호(任健鎬)에게 대하여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권하였다. 관리가 만세를 부르는 시위운동을 승인케 하고 일면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여서 순사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였다. 또 자기가 만세를 부른 것은 조선독립을 꾀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기재,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e-gonghun.mpva.go.kr)

여 백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손자 **윤성준**이 기억하는 윤동욱 지사





수암 · 군자에선 운동육 기침소리에도 고개 숙인다는 말 있을 정도

시흥시 산현동 골월마을, 세월을 비껴가는 외진 마을에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 온 윤성준(1941년생) 씨. 지역 3·1운동의 주역으로 시흥의 인물에 선정된 운동육 지사의 손자다. 그의 기억 속 운동육 지사는 강직하고 엄했던 할아버지였다. “수암면, 군자면에서는 운동육 기침 소리에도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었다”며 곧고 바른 말 잘했던 조부를 회고했다. 증조할머니까지 4대가 한집에서 살았던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과 장기를 배웠다. 그다지 인자하지도 자상하지도 않았던 조부였으나 집안에서는 여가를 함께 보내는 파트너를 자처했다.

할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한량’이었다. 마을과 문중 일하면서, 시간 나면 활 쏘고 장기 두고, 친구들 만나고, 몸 관리 하는 일로 소일을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삼았다. 뻗뻗하게 풀 먹여 다린 도포 차려 입고 경상도로 전라도로 파평 윤씨 문중 행사에 다니셨다. 가정 살림은 일체 나몰라라 했기에 자연스럽게 가정을 돌보는 일은 부친에게 넘어왔다. 그의 부친은 17살 때부터 농사를 짓고 집 짓는 기술로 생계를 책임졌다.

윤성준 씨가 학창시절 하교하던 중 마을 어귀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치면 장소 불문하고 엎드려 절을 했는데 친구들 보기 창피하고 민망했었다. 하지만 법도를 중요시 여기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어리광도 투정도 용납되지 않았다.

윤동욱 지사는 그를 대동하고 문중 일을 보러 다니기도 했는데, 제례 절차를 잘 모르는 그에게 시향에 참석해 아헌, 종헌 잔 올리는 당신 모습을 보여주기 좋아했다. 술 마시기를 즐겼던 조부는 반주가 필수였는데 그에게도 직접 주도를 가르쳤다. 50cm쯤 되는 곰방대에 담뱃불을 붙이는 당번도 그였다. 말을 많이 안하던 성품이라 화가 난 표시로 늦재떨이를 두드렸는데, 식구들을 일순간 긴장모드로 돌입하게 만드는 마력의 소리였다. 조부의 엄격함은 집안을 넘어 마을에까지 미쳤다. 동네 시아버지였다. ‘으흠’하면 주변 사람들이 긴장해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늘 조심했다. 강직하고 엄격한 조부였으나 천성적으로 잘했던 것이 이웃을 돕는 일이었다. 집안 내력인지 윤성준 씨의 부친도 불우한 처지의 이웃을 보면 그냥 있지 못했다. 불러서 일을 시키고 넉넉한 품삯을 쥐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조부의 행적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우연히 옷 입는 조부의 울퉁불퉁한 엉덩이를 본 적이 있었다. 충격이 컸다. 부친에게 들었던 얘기대로 결례를 연상케 했다. 감옥행을 버리고 선택한 태형이었고 못 박힌 곤장을 지독하게 맞고도 살아 돌아왔지만, 긴 세월도 흉하게 변한 상흔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실없는 말, 농담을 절대 하지 않는 할아버지였기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그가 수암면사무소 근무 당시 우연히 범죄자 색인에서 조부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조부의 공적에 대해 알게 됐다. 관심을 갖게 되자 조부의 유아독존 스타일의 성격도 이해하게 됐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속마음과 달리 표현이 참 서툴렀던 할아버지였구나” 싶다. 귀엽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늘 자신을 곁에 두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게 됐다. 도포 자락 나부끼며 문중 일로 분주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눈에 아직도 선하다.

글 박종남 사진 박영권

윤 병 소

尹秉召

1893 - 1919

2천여 민중의 함성 이끌고
감옥에서 마감한 치열했던 삶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1919년 3월 30일 수암면 비석거리(현 안산시 안산농협 수암지점 뒤편)에서 시흥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수암면은 옛 안산 치소(安山治所)가 있던 곳으로, 면사무소·경찰주재소·보통학교·향교 등이 모여 있었다.²⁹⁾ 이중 조선시대 안산군 지방관의 송덕비가 모여 있어 비립동(碑立洞)이라 불리던 비석거리는 지역의 중심가였다. 이날은 수암면 18개 동·리³⁰⁾에서 모인 2천여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끝없는 행렬의 선두에는 스물일곱 청년, 윤병소(尹秉召) 지사가 있었다.

29)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자연과 역사』(안산시사 1), 505쪽

30) 수암·장상·부곡·양상·성포·장하·능곡·화정·와·고잔·월파·조남·목감·물왕·산현·하상·광석·논곡·하중리



태극기 휘두르며 군중의 선봉으로

1893년 태어난 그의 본관은 남원(南原), 이명은 병소(秉昭)다. 이명은 본명 ‘秉昭’의 부를 소(昭) 자를 밝을 소(昭) 자로 변경한 것이다. 경기도 수원군 음덕면(지금의 화성시 남양읍) 출신으로, 3·1 운동 당시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182번지(지금의 시흥시 능곡동)에 살고 있었다.

윤병소는 거사 전날 화정리의 이봉구(李鳳求)로부터 ‘내일 30일 수암리 내 비립동(碑立洞)으로 대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이니 그곳에 모이라’는 격문이 돌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에는 능곡리의 아버지 집에도 같은 취지의 격문이 왔다는 것을 동생에게 전해 들었다. 이튿날 10시경 윤병소는 격문에 쓰인 집합장소인 수암면 비석거리로 향했다.

거리는 이미 각 마을에서 온 시위대로 붐볐다. 10시가 되기 전부터 13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동참자들이 속속 도착하여 곧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윤병소가 도착했을 무렵 와리의 대지주인 홍순칠(洪淳七)이 후일 불참이유를 문책하기 위해 인원을 세고 있었다. 당시 수암면 인구가 8000명 정도였으니 노인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성인의 절반 가량이 모였다고 할 수 있다.³¹⁾

윤병소는 홍순칠, 류익수(柳益秀), 윤동욱(尹東旭), 김병권(金秉

31) 안산문화원, 2019, 『수암면 3·1운동』 『청소년을 위한 안산의 독립운동 이야기』, 54쪽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權), 이봉문(李奉文) 등과 함께 시위 행렬 선두에 서 군중을 이끌었다. 군중은 윤병소의 손에 와리 동민들이 제작한 태극기를 쥐여 주었고, 그는 이 태극기를 힘차게 휘두르며 나아갔다.

저마다 작은 태극기를 들고 대형 태극기 2개를 앞세운 시위대가 만세를 외치며 전진하던 중이었다. 순사가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로 갈 때는 발포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행진을 저지했다. 군중이 잠깐 동요했지만 시위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부곡리의 유익수가 앞장서 읍내로 향했고, 윤병소도 군중을 이끌어 안산 공립보통학교(현 안산초등학교), 수암경찰서 주재소(현 안산교회), 수암면사무소(현 안산객사 자리)를 차례로 행진했다. 수암경찰서 주재소와 수암면사무소는 일제의 무단통치를 수행하는 하부 통치 기구였기에 군중은 이곳을 “불태우자”며 분노하기도 했다. 이때 산현리의 윤동욱이 “우리가 독립되면 관공서는 우리 국유 재산이니 털끝만큼도 상하게 마라.”라며 만류하자 대열이 정돈됐다. 마침내 시위대가 안산향교에 이르자 순사들이 사격자세로 위협했고, 많은 사람의 안전을 염려한 윤병소가 자진해산하도록 지휘했다.

3월 29일 화정리(花井里)로부터 내일 30일 수암리 내 비립동(碑立洞)으로 대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이니 그곳에 모이라는 격문이 회송된 것을 이봉구(李鳳求)로부터 들었는데 그날 밤 능곡리(陵谷里)의 아버지 집에도 동 취지의 회문(廻文)이 왔다는 것을 동생한테 들었다. 그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다음날 10시경 수암리로 가서 각리에서 모인 사람이 2천명 정도였고, 홍순칠(洪淳七)은 위 인원 조사를 하고 있었다. 자신은 와리(瓦里)에서 만들어진 태극기를 받아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불렀고, 수암리 읍내로 물려갔는데 경관이 와서 해산하라고 명령했으나 위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공립보통학교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로 가서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시위운동을 시도한 후 해산했다.³²⁾

2심 재판 앞두고 감옥에서 순국

윤병소 지사는 4월 5일 일제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일제히 검거할 때 붙잡혔다.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혐의로 판사 카가미(鏡一以)로부터 10개월의 형을 받았다. 그는 사법 경찰관의 신문조서에 “자신은 진심으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는 자로서 그 독립을 얻기 위해 위의 운동을 했다”고 답했다. 일제의 무력에도 굴하지 않은 그의 신념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옥고를 치르던 윤병소 지사는 2심 재판에 서기도 전에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32) 윤병소 등 판결문, 1919.5.27, 경성지방법원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
족장을 추서했다. 시흥시
는 앞으로 독립지사 윤병
소 기념비를 건립할 예정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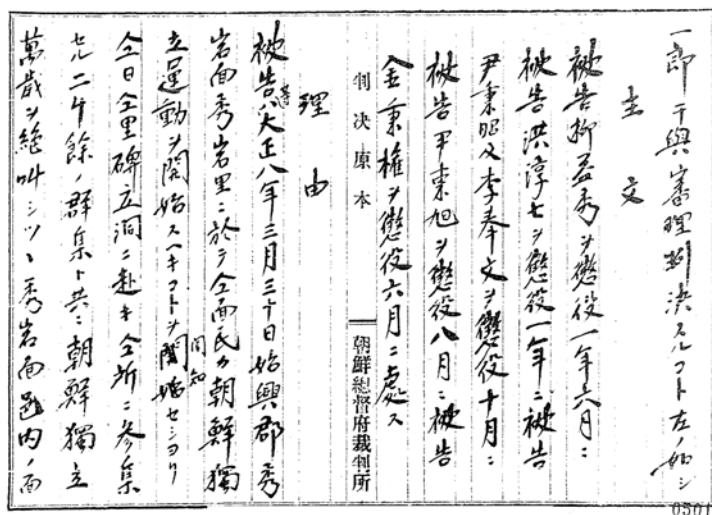
글 이온



윤병소 지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화성 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 내 추모벽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산61-1)
©이병권



● 윤병소 판결문 원문 (출처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판결문 번역

※ 판결은 윤병소, 홍순철, 유익수, 윤동욱, 김병권, 이봉문 등에 대해 동시에 선고됐다.
아래 내용은 그 중 윤병소 지사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판결

주소·본적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秀岩面) 능곡리(陵谷里) 182번지
농업 윤병소(尹秉昭) 당 27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자와 사이치로우(山澤佐一郎)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유익수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 홍순철을 징역 1년에, 피고 윤병소 및 이봉문을 징역 10월에 피고 윤동욱을 징역 8월에, 피고 김병권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에서 그 면 사람들이 조선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날 같은 동리 비립동(碑立洞)에 가서 그곳에 모여 온 2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수암면 읍내에 있는 면사무소·보통학교 및 공자묘(孔子廟) 앞으로 몰려가서 극도로 소란을 피웠는데, 그 중 피고 유익수와 윤병소는 위 군중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군중을 지휘인솔하여 모두 조선독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전기 불온거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1. 사법경찰관의 보안법 위반자 연행보고 중에, '3월 30일 수암면 내의 18개 이의 이민 약 2천 명이 수암경찰관주재소의 서쪽 밭에 모여서 큰 기류를 떠받들고 각자는 작은 기를 가지고서 "수암주재소·면사무소를 불태워버리자"고 외치면서 동 관청에 몰려가 일변 만세를 부르고 불온행동을 하므로 우리들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역시 이에 순응하지 않으므로 거짓 사격태세를 취하여 겨우 해산시켰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 윤병소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에 '3월 29일 화정리에서 명 30일 수암리의 비립동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니 그 곳에 모이라'는 격문을 돌렸다는 것을 이봉구(李鳳求)에게 들었으나 그 날 밤 '능곡리의 친아버지 집에도 같은 취지의 통문이 왔다'는 것을 친동생에게 들었다. 그 이튿날 10시 경 수암리에 갔더니 각 이에서 모인 자들이 2천 명 가량 있었다. 홍순철은 위의 인원을 조사하고 있었다. 자기는 와리에서 만든 태극기를 받아 가지고 선두에 서서 만세를 외치면서 수암리 읍내로 몰려 가니까 경찰관이 와서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서 공립 보통학교·경찰관주재소·면사무소로 가서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시도한 후 해산하였다. 자기는 충심으로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자로서 그 독립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기한 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e-gonghun.mpva.go.kr)

여 백

장 수 산 (장 순 한)

張壽山 (張淳翰)

1900 - 1981

비록 거사는 실패했지만
출소 후엔 문화·교육에 온힘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불붙은 만세운동의 불길은 전국으로 거세게 번져 나갔다. 아이부터 노인, 학생과 기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온 인파들은 하나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서울 인근에 위치했던 시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군자면과 수암면(지금의 시흥시와 안산시 일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옛 군자면 구 시장 만세운동을 주도한 장수산(張壽山)³³⁾ 지사는 1900년 8월 7일생으로 당시 20세의 청년이었다. 첫 이름은 ‘수산(壽山)’이었으나 이후 ‘순한(淳翰)’으로 바꾸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우고 군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시흥

33) 본관은 덕수(德水), 초명은 수산(壽山)·순한(淳翰), 자는 중옥(重玉), 호는 매암(梅巖). 신평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의 동생 덕창군(德昌君) 장신(張紳)의 12대손이고 진사 장호(張灝)의 6세손이다. 아버지 장주진(張周鎭)과 어머니 김주찬(金周鑣)의 장남이다. 아들은 민속학자 장철수(張哲秀)이다. (이병권, 『장순한』, 디지털시흥문화대전 siheung.grandculture.net)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는데³⁴⁾ 장수산 지사 역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19년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의 장수산과 권희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동갑내기 청년이었다.

1919년 4월의 행적으로 보면 장수산과 권희는 큰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기꺼이 손을 잡는 친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권희와 장수산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권희는 비밀통고문을 직접 작성하는 한편 여러 동네에서 차례로 회람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했으며, 장수산은 이를 같은 동네 이종영의 집 앞에 놓아두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2019년 3월 1일자에서 “권희는 기존의 국한문 혼용 독립선언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통고문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이 회람할 수 있게 마을 어귀에 놓아뒀다. 어려운 현안이 생겼을 때 누리꾼들이 이해를 돕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과 닮아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자는 물론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던 시절임을 감안해 권희는 우리 글로 된 비밀통고를 작성하고 여기에 그림까지 그려 동네 사람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장수산은 권희가 여러 정

34) 1916년에 조사된 시흥군 수암면의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 호수는 1592호, 인구는 8124명이며 그중 96%에 해당하는 7812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시흥시사 3), 181쪽)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황을 감안해 작성한 비밀통고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읽고, 보다 멀리 전해지기를 바라며 숨죽여 전달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비밀통고는 ‘장곡리 남쪽 고개길 노변에 작은 돌과 함께 봉하지 않은 봉투 속에 들어’있기도 했고 장곡리와 월곡리의 이장 앞으로도 보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밀통고를 전달받은 이는 문서에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사환을 시켜 보내기도 했으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4월 7일 태극기를 가지고 구 장터에 나가서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을 담은 비밀통고는 일본 경찰에 의해 사전 발각되고 만다. 장수산 지사는 권희 지사와 함께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다.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君子面 長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권희(權熺)와 함께 이곳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동리 사람들을 계몽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1919년 4월 6일 권희의 집에서 ‘비밀통고문(秘密通告文)’을 제작하여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이튿날인 7일에 태극기를 가지고 구 장터에 나와서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것으로 이 비밀통고문을 각 동리의 구장(區長)에게 전달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그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³⁵⁾

만세운동의 중심, 석곡 산대장

군자면 구시장 만세운동의 뜻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립을 향한 숭고한 정신만은 지역사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다. 군자면 만세운동의 중심지역은 군자면사무소와 거모경찰관주재소가 있던 지금의 거모동이었다. 거모동을 중심으로 지금의 시흥시 장곡동, 월곡동, 장현동과 안산시 선부동에서 활발하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³⁶⁾ 군자면은 구한말 일제 침략의 위기 상황에서 서해와 맞닿아 인천과 서해안 등지를 거점으로 하는 항일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³⁷⁾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장수산이 거사장소로 지정했던 구시장은 지금의 서안산 나들

35) 장수산, 독립유공자 공훈록, 독립유공자 정보(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36) 시흥장수신문, 2019. 2. 28. 「피끓는 외침! 대한독립만세!! - 시흥지역에서의 3.1혁명 기록 돌아보기」

37) 이병권, 「군자면 3.1운동」(디지털시흥문화대전 siheung.grandculture.net)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목 부근으로, 안산의 대표적 장시였던 석곡산대장(石谷山垔場)³⁸⁾ 자리이다. 1896년 2월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에 반발하고 정부의 친일 행태를 성토하는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³⁹⁾

지역 문화와 교육에 힘쓴 장유의 혈족

조선의 양명학자 장유⁴⁰⁾의 일가로 그의 동생 장신의 후손이기도 한 장수산 지사는 출소 후 문인으로서의 기질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시흥의 문인들은 기울어가는 국운을 한시를 통해 바로잡자는 뜻으로 한시 창작 모임 ‘연성음사(蓮城吟社)’를 결성했다. 연성음사 회원들은 만날 때마다 창작을 하면서도 책으로 묶기 어려운 애로점이 생기자 새로운 방향의 타개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 활동의 전국적인 확대방안으로 한시 현상공모를 시행하게 된 것이

38) 석곡산대장石谷山垔場은 현재 산대장으로 불리며, 단원구 선부2동에 위치하였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현재 위치가 시흥시 거모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선부2동과 거모동이 인접해 있으므로 같은 지역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석곡산대장은 조선시대 안산 관내 최초로 들어선 5일장으로 3·8일에 장이 섰다. 《1872년 지방지도》에 산대장이 등장하는데, 위치는 안산 서쪽 대월면이다. 《안산군읍지》에 따르면, 대월면에 산대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위치는 군자산 남쪽으로 석곡역과도 인접해 있다. 간척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산대장에서 서해까지는 약 2km로 수산물과 내륙 농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안산시사 1』, 252쪽)

39) 이병권, 2017, 「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경기향토사학(제22집)』, 159쪽, 경기도문화원연합회

40)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서 활동한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당대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적 경직성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포함한 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병권, 「장유」, 디지털시흥문화대전siheung.grandculture.net)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다.⁴¹⁾ 일제의 탄압 때문에 최종 마감일로부터 2년이 지난 1929년 2월 21일에야 공모 수상작품집 『연성음사 제일회집(蓮城吟社 第壹回集)』이 발간됐다.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京畿道 始興郡 秀岩面 下中里)에 있는 연성음사에서는 동사 창립오주년 기념사업으로 현상한시모집(懸賞漢詩募集)을 아래와 가치 행한다더라(시흥).

一. 題錢塘紅韻(押塘)	제전당홍운(압당)
一. 期限丁卯陰十月末日 까지	기한정묘음십월말일까지
一. 投稿方法朝鮮白紙半折	투고방법조선백지반절
一. 刊行費每首五十錢	간행비매수오십전
一. 投稿場所前記同社內	투고장소전기동사내
一. 賞品 一等一人五十圓	상품 일등일인오십원
二等二人各三十圓	이등이인각삼십원
三等四人各十圓	삼등사인각십원
四等八人各五圓	사등팔인각오원
五等四十人各二圓	오등사십인각이원
六等百人各一圓	육등백인각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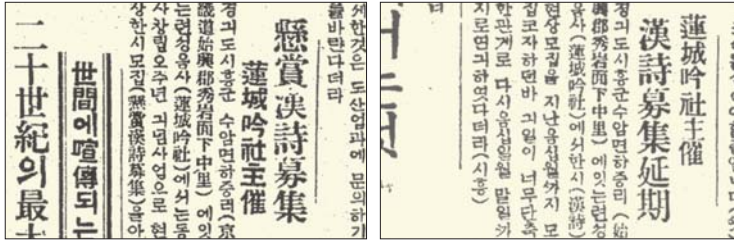
— 『동아일보』 1927년 9월21일⁴²⁾

41)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시흥시사 3), 273쪽

4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73쪽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연성음사 모집광고(출처 : 『시흥의 근현대』(시흥시사 3), 274쪽)

『연성음사 제일회집(蓮城吟社第壹回集)』
(출처 : 『시흥의 근현대』(시흥시사 3), 275쪽)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연성음사 제일회집』의 판권란의 사고(社告)

본 시집의 원고접수 마감기한이 이미 여러 달을 넘겨서 여러 선비들의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했으니 본사에 대해 유감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흐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책을 고치고 당국의 승인과 검열을 마쳐 출간하게 되기까지 어찌 시일이 소요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건대 투고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참작하셔서 깊이 살펴 이해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소화 3년 4월 연성음사 아뢰.

本社集收稿期限 已經數朔 少違諸彥之渴望 在於本社 遺憾良多. 然勢也奈何 計其考定 及當局承認檢閱 至於刊出 日子則豈無時日之費哉. 惟希投稿諸氏 酌右事實 庶賜洞諒幸甚. 昭和3年4月 蓮城吟社 白.⁴³⁾

장수산 지사는 이 한시공모에 5등으로 입상했다. 다음은 장수산의 입상작 「전당홍(錢塘紅)」 원문이다.

43)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시흥시사 3), 275쪽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전당홍(錢塘紅)

何年隨使出錢塘(하년수사출전당)	어느 해에 사신 따라 전당 ¹ 에서 떠났는가
瓣白尖紅異衆芳(판백첨홍이중방)	하얀 속살 붉은 송이 여느 꽃과 다르구나.
半島秋光藏瓣扇(반도추광장판선)	반도의 가을풍경 연잎 속에 잠겼고
大明風氣葆尖房(대명풍기보첨방)	명나라의 풍기가 꽃송이에 가득하네.
香連太液懸題美(향연태역현제미)	향기가 태액 ² 에서 이어 현제 ³ 가 좋고
色近東林結社良(색근동림결사량)	빛이 동림사와 가까워 결사 ⁴ 하기 좋구나
久植花川逢愛護(구식화천봉애호)	오랫동안 화천에 심겨 사랑을 받고 있으니
蓮城可作并州鄉(연성가작병주향)	연성 ⁵ 은 가히 병주향 ⁶ 이 될 수 있겠구나.

주해⁴⁴⁾

1. 전당(錢塘): 중국 절강성(浙江省)을 북동으로 흘러 항주만(杭州灣)으로 흐르는 강. 인근의 서호(西湖)를 전당호라 부르기도 한다.
2. 태액(太液): 당대(唐代)의 대명궁(大明宮) 안에 있던 연못인 태액지(太液池)로, 전하여 대궐의 연못을 가리킨다.
3. 현제(懸題): 시제(詩題)를 거는 것을 말한다.
4. 결사(結社): 원래는 승려들이 단체로 모여 수행하는 것이다. 동진(東晉) 시대의 명승인 혜원법사가 여산(廬山) 동림사에 흰 연꽃을 심고 당대의 명유(名儒)인 도잠, 육수정 등을 초청하여 승속(僧俗)이 함께 염불 수행을 할 목적으로 백련사를 결성하고 서로 왕래하며 친밀하게 지냈다. 이 시에서의 결사는 연성음사를 말한다.
5. 연성(蓮城): 조선시대 안산군의 별호이다. 『안산군읍지』(1871)에 의하면 세조 때의 문신인 강희맹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남경에서 전당홍 연꽃씨를 가져와 심었으므로 이 고을의 별호를 연성이라 하였다고 한다.
6. 병주향(井州鄉): 제2의 고향을 말한다. 당나라 가도(賈島)가 병주(井州)에 오래 살다가 떠난 후, 시를 지어 그곳을 고향처럼 그리워 한데서 유래하였다.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장수산 지사

1945년 해방 이후 장수산 지사는 모교인 군자국민학교(지금의 군자초등학교)의 거모간이학교를 이전하여 장곡국민학교(지금의 장곡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일상에 자주 유학을 논했던 그답게 후손의 교육도 중요히 여긴 것이다.

이후 육십여 년 전 1심 재판과 같은 날인 1981년 5월 15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타계했으며, 부부

가 합장된 묘소는 시흥시 거모동 11-2에 위치해 있다. 전에는 시흥시 장곡동 매꿀 덕수 장씨(德水張氏) 세장지(世葬地)에 있었으나 1997년 도시 개발로 이장하였다.⁴⁵⁾ 후손들의 요청으로 ‘장수산 지사묘’ 안내 표지석을 시에서 제작해 세웠다.

대한독립이라는 큰 꿈을 품고, 이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장수산 지사.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훈장증 464호)을 추서했으며, 시흥시는 2019년 6월 독립지사 장수산 기념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글 이운

45) 이병권, 「장수한」(디지털시흥문화대전 siheung.grandculture.net)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장수산 지사 묘 입구의 안내표지석



현재의 장곡초등학교

● 장수산 서대문형무소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氏 名		年 齡	年 月 日 生	指 紋 番 號
身 長		尺 寸	分	No.
特 徵				




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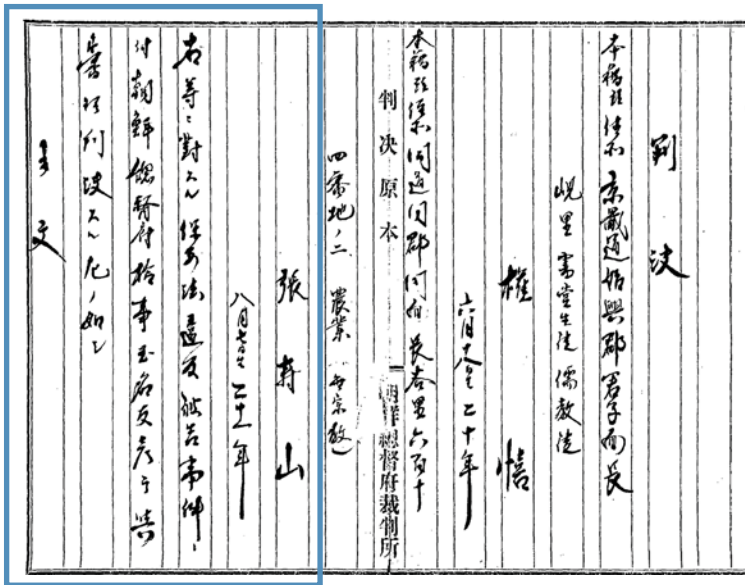
[illegible]

뒷면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 장수산 판결문 원문 (출처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판결문 번역

※ 판결은 권희, 장수산 등에 대해 동시에 선고됐다.
아래 내용은 그 중 장수산 지사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판결

본작·주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장곡리(長谷里) 614번지의 2
농업(무종교) 장수산(張壽山) 8월 7일생 21세
상기자들에게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타마나 토모히코(玉名友彦)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장수산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각각 제출인에게 반환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제국(일본) 통치의 굴레를 벗고 조선국을 수립하려는 뜻을 외친 이래로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자 이에 찬동하여 피고들의 동리에서도 역시 많은 이민을 선동 그 운동의 기운을 빚어 내려고 하여 동년 4월 6일 전기 피고 권희 집에서 그 피고의 발의 집필로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 아래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고, 또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명 7월 이 먼 구 시장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이민은 구 한국기 1개씩을 휴대하고서 와서 모이라’는 취지의 정치에 관하여 불온 문구를 기재한 문서 1통(중 제1호)을 작성한 후 이민들에게 회람시킬 목적으로 피고 장수산이 이를 같은 동리의 구장의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놓아 두고 각 이민에게 회람시켜 많은 이민들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1. 당 공판정에서 말한 피고 양인이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자백
2.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종진(李鍾振)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 오후 3시 경 발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君子里)에 접근된 장곡리 남쪽 고개 길 노변에 봉투 속에 1통의 문서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대로 들어 있었다. 자기는 글자를 모르므로 이종형(李鍾亨)이란 자에게 읽어 달랬더니 “4월 7일 만세를 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 사발통문(沙鉢通文)이라고 하며 그는 이것을 장곡리 이장 이덕증(李德增)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덕증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 오후 6시 경 이민 이승수(李應洙)가 이종형으로부터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하며 비밀통고문 1통을 자기에게 주므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읽어 보니까 “오는 7일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부를터이니 구 시장 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모여 오지 않는 자는 후일 위해가 있을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자기는 후환이 두려워 곧 그 문서를 지정되어 있는 이트 월관리(月串里) 구장 앞으로 사환을 시켜서 보낸 일이 있다. 중 제1호는 즉 그 비밀통고문이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가 있는 것과,
1. 압수된 비밀 통고문 1통(중 제1호)이 현존하는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범행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그 경한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그 형의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할 것이며, 압수물건은 물수에 걸리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거 각각 제출인에게 반환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e-gonghun.mpva.go.kr)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재종손 **장경태**가 기억하는 장수산 지사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예의와 의리 중시하고 학구열 높았던 어른

“큰 산이야. 우리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던 분이야. 무척 엄했어.”
재종조부(할아버지의 사촌형제) 장수산 지사의 이미지를 떠올린 장곡동 토박이 장경태(1938년생) 씨. 그의 조부와 장수산 지사는 모두 외아들이라 집성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촌수였다. 자연스레 조상의 기제사를 집안에서 함께 모셨는데, 이제 그는 집안에서 장수산 지사를 기억하는 최고 연장자가 됐다. 그가 장수산 지사의 면면을 들려줬다.

족보에는 장순한(張淳翰)으로 나와. 어릴 때 이름이 수산이고, 자는 중옥(重玉)이고 호가 매암(梅巖)이야. 한학을 하신 분이라 조상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했어. 제사를 지낼 땐 반드시 불러서 상차림의 의미를 설명하고는 했지. 다른 집안은 흥동백서 조율이시라고 하잖어. 우리는 조율시리(棗栗柿梨)야. 과일의 씨앗 개수대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로 나가는 거야. 대추는 하나라서 임금을 뜻하고 밤은 3개라 삼정승을 말하고 감은 6개까지 있어서 6조를 나타내고, 배의 8개 씨앗은 팔도관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시곤 했어.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 방학해서 집에 오면 축문 쓰는 법을 배웠어. 내가 집안에서 만이다보니 붙잡고 가르칠 것이 많았나봐. 집안에 초상이 나면 나한테 염하는 걸 보라고 했는데 무서웠지. 스무살이 채 되기 전이니. 그래도 엄한 분부에 따라야 했어.

지금 시절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그분이 남존여비 사상이 무척 강하신 분이야.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일주일 안에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도 지어줬어. 딸이 태어나면 한 달이 지나도 안 들여다 봐. 집안의 손자들은 귀여워했어.

방학이면 불러서, 형무소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 안으로 넣는 끔찍한 고문 경험도 들려줬지. 같이 만세운동에 가담하자고 사발통고문을 썼던 권희 지사 얘기도 해 주셨어. 권희 지사한테 후손이 없는 건 다 고문 때문이라고 했지.

학구열이 높았던 어른이야. 자신은 한학만 배웠지만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며 군자국민학교 장곡분교장 설립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 건립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팽과리와 징을 치고 마을을 다니며 쌀을 추렴해서 기금을 조성했어. 지금 거모동 동보아파트 건너편에 있던 군자국민학교 거모분교장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이었던 건물을 헐어서 교실 2개를 만들었어. 월곶, 장현, 장곡 동네 아이들이 군자국민학교까지 안가고 여기로 다녔지. 그냥 시골 노인이라고는 할 수 없던 분이야.

키도 워낙에 크고 체구가 좋았던 분이라 음성까지 갔지. 찌렁찌렁해. 시골에서 예전에 혼인을 하면 신랑에게 재를 뿌리기도 하고 묶어놓고 발바닥도 때

리고 했잖아. 그런 행동을 보면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어. 워낙 엄한데다 목소리에도 힘이 있으니 바로 접어야 했어. 집안에서는 그의 말이 법이었어.



아는 것이 많았던 분이야. 아마도 어려서 수산 어른의 백부에게서 한학을 배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 백부가 고종 때 초시에 합격했던 성균관 유생이었으니까. 수산 할아버지는 한학도 배웠고 머리도 좋으셨어. 23세 때 연성음사 전국 한시대회에 출전해서 5등의 영예를 안았던 실력이야.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어달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라고 부탁했어. 사주명리를 공부하셔서 궁합도 봐줬어. 집 지으면
상량문도 써 달라고 하고, 대단한 실력자야.

예의와 의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던 분이야. 논
농사가 주였던 그 시절에 모내기철이 되면 먼저 모내는 법이 없
어. 형님인 우리 집안에서 하기를 기다렸다가 했어. 게를 잡으면 4
살 많은 우리 조부에게 드시라고 가져다주고, 맛담배는 절대 피우
지 않았어. 항상 돌아서서 피우고 그랬지. 그 어른이 약주를 좋아
했어. 술, 담배를 다 했지. 하지만 흐트러진 자세를 보인 적이 없
어. 개고기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기억도 있네.

일제 치하에서는 보안사범 혐의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
었잖아. 어른의 이력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담배 가게야. 구판장
도 없던 시절 이야기야. 해방 직후에 동네 구장을 맡기도 하고 지역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정보를 얻은 건지 담배를 전매하던 시절에
장곡에서 연초소매점을 했어.

그리고 뒤늦게 재혼해서 아들을 얻었지. 아들이 장철수라고 유명
한 교수였잖아. 44살에 얻은 아들 공부를 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 나중에는 독일 유학 갔다 온 아들이 안동대학교에
교수로 가자 거길 따라갔다 그곳에서 1981년에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어.

동네에 살면서 인심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라 상여를 매는 일도 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1996년에 부인이 돌아가셔서 종산에 묘



2. 시흥지역의 3·1 독립유공자 5인

를 쓰려고 했는데 막 개발바람이 부니 아들이 지금 자리를 따로 구입해서 장사를 지냈어. 안동에서 차로 옮겨와서 마전저수지 가는 사거리부터 상여를 매고 묘지까지 갔어.

지금은 묘지 주변 입구 땅도 손자가 구입했어. 손자가 전남대학교 치대 교수야. 딸이 둘인데 한 명은 여기 있고 한명은 미국에 살고 있어. 손이 귀한 집안이지.

얼마 전에도 방송국에서 장수산 할아버지에 대해 촬영을 했어. 제일 잘 알고 있는 나를 찾아오니 아는 대로 얘기했지. 자꾸 찾아와도 전혀 귀찮지 않아. 자랑스럽지. 나라를 잃고 고생하던 왜정시대에 용기를 냈던 분이 바로 나의 재종조부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이 고맙지.

글 박종남 사진 안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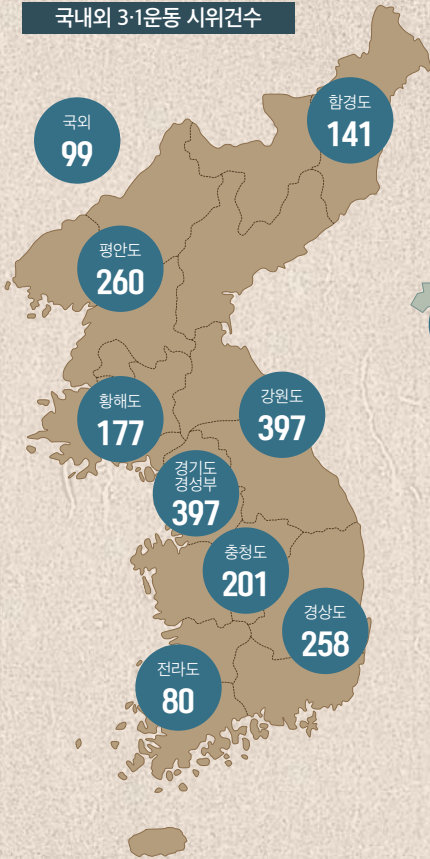




1919년 그래픽으로 본 시흥지역과 전국 3·1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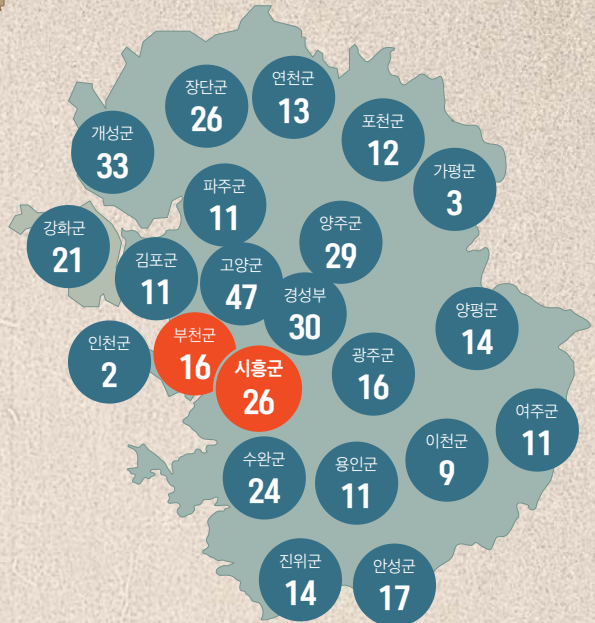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3·1운동 시위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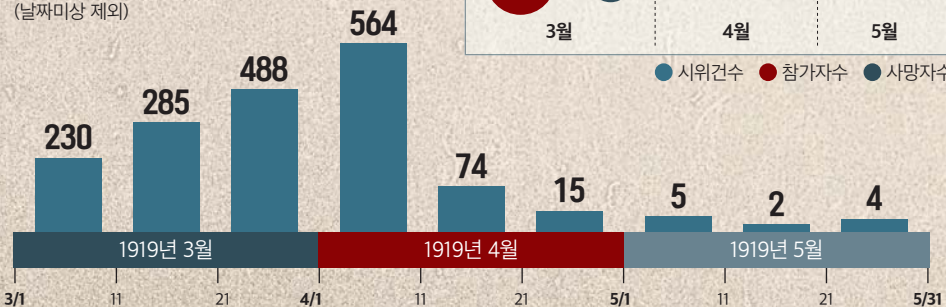
경기도 지역별 3·1운동 시위건수

(3·1운동 당시의 행정구역 기준, 해당군 전체의 시위 수)



국내외 월별 10일단위 시위 수

(날짜미상 제외)



3·1운동 월별 총 시위, 참가자, 사망자 수



● 시위건수 ● 참가자수 ● 사망자수



들불처럼 일어난 시흥지역의 3·1운동

월	일	
2	8	재일 유학생 독립선언
3	1	- 민족 33인 대표 3·1 독립 선언, 3·1운동 시작
	24	- 부천군 소래면과 계남면에서 750여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
	29	-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월곶리에서 100여 명 만세시위 -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부근 등 7곳에서 각 100여 명 만세시위
	30	-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비석거리에서 2000여 명 만세시위
	31	-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만세시위 -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 만세시위
4	1	-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사천장 만세시위
	2	-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사천장 80여 명 만세시위
	4	-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에서 1000여 명 만세시위
	6	-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에서 구시장(석곡 산대장) 만세시위 모의
	11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19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3·1 100

지금,
여 기 에 서

다 시 만 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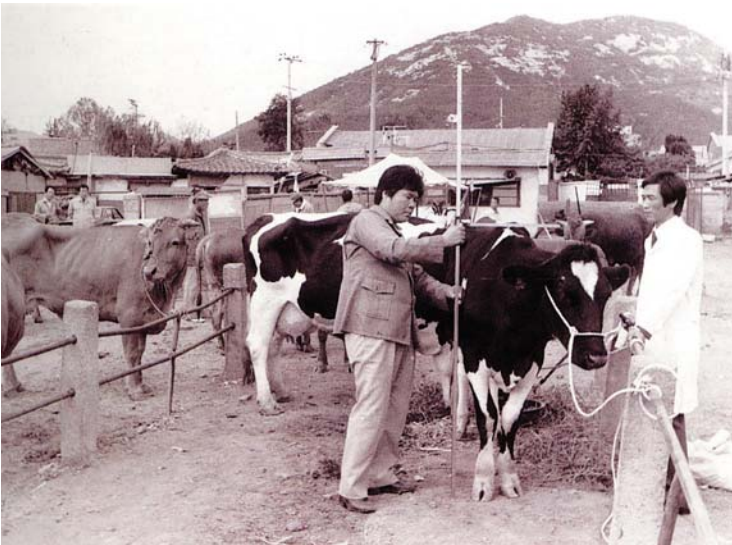
그 날 ,
그 곳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1930년대 뱀내우시장. 뱀내장 차량 운행을 기념해 찍은 것으로 사람들 뒤로 우시장이 보인다.



뱀내우시장과 소래산의 1970년대 풍경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신천동 문화의거리에 있는 뱀내장터 표지석(시흥시 신천동 111)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소래산의 현재 모습(작은 사진은 산 정상에 있는 소래산 표지석)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group of men working on a cemetery. In the foreground, a man is kneeling and planting a small tree in a grave. Several other men stand nearby, some holding tools. The background shows a hillside with more graves and simple houses.

[illegible]

*시흥시, 1996, 「시흥의 역사와 행정」,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①』, 29쪽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3·1 만세운동 당시 보통학교(현 안산초등학교,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77)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수암경찰관주재소 터(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78-1) ©이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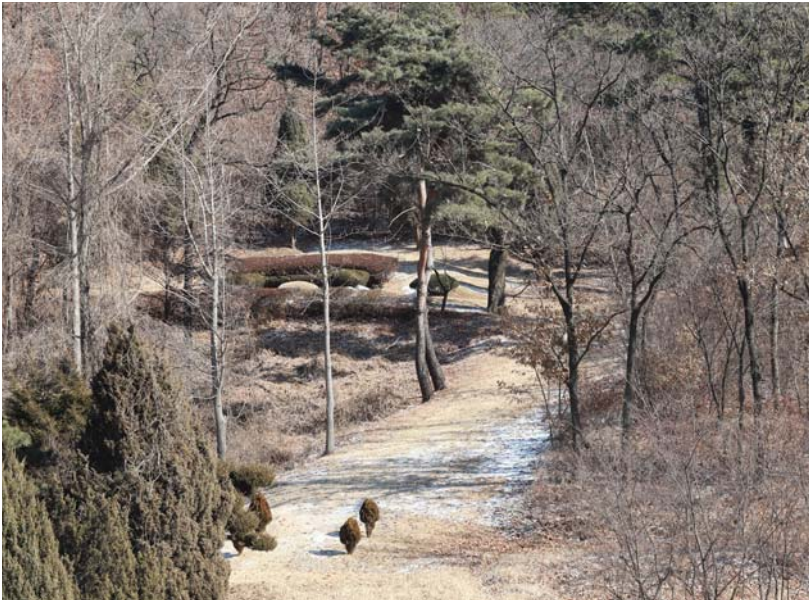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수암면사무소 터(현 안산객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26-4) ©이병권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향교(공자묘). 현재는 터만 남았다.(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352)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군자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표지판(왼쪽 사진)과
군자면사무소 터(시흥시 군자로 533번길 11)의 현재 모습 ©이병권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군자동 군자파출소(시흥시 군자로 513) 앞 보도에 있는
'거모리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표지판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1919년 4월 4일 오전 11시 경
1000여 명의 군자면 주민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펼친 거모리 경찰주재소의
현재 모습(시흥시 군자로)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석곡 산대장터의 현재 모습이다.
서안산 나들목 부근(시흥시 거모동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경계) ©이병권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군자초등학교(시흥시 거모동 1577-1) 교정에 세운 '독립운동 유적지' 표지석. 상단에는 철판에 만세운동 모습이 그림으로 새겨져 있다.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군자초등학교에 2015년 건립한 시흥시 삼일독립운동 기념비.
시흥시는 매년 3월 1일 이곳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권희 지사 생가터(위 사진, 시흥시 장현동 417)와 봉분 없이 묘비만 남아있는 권희 지사 묘역.
지사의 유해는 현재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심우일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2018년 7월 20일 죽율동 생금집(시흥시 향토유적 제7호) 앞에 건립된 독립지사 김천복 기념비(시흥시 죽율로 45-32, 생금어린이공원 내)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독립지사 김천복 기념비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천복 지사의 딸 김화진 씨(왼쪽 사진)

김천복 지사의 유족과 시민들이 기념비 제막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항일애국지사 학은 윤동옥 선생 기념비(시흥시 산현동 산 52-3, 묘소 아래 위치)



산현동 깨골마을에 있는 윤동옥 지사 묘소 ©박종남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2019년 3월 30일 건립한 독립지사 윤동욱 기념비(목감동 산헌공원, 목감남서로 15)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독립지사 윤동옥 기념비 앞에 선
손자 윤성준 씨 부부(위쪽 사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임병택 시장, 김영기 문화원장을
비롯한 시민과 유족들





3. 시흥지역 3·1운동의 현장



거모동 장수산 지사의
묘와 묘비
(시흥시 거모동 11-2)





100년 되새김

31 100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1923년 개교한 군자초등학교 교정에는 1995년 8월 15일 건립한 ‘독립운동 유적지비’와 2015년 세운 ‘시흥시 삼일독립운동 기념비’가 있다. 1919년 시흥지역 만세운동 당시 독립지사와 참여자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100년 전 만세운동 당시 군자면사무소 자리였던 이곳에서 군자면 주민 수백여 명이 모



여 만세를 외친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년 시흥시의 3·1절 기념식도 이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시흥시는 2019년 3월 1일 오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특히 올해는 시흥지역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무대 바로 앞에 마련된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시립전통예술단의 장중한 북소리가 100년의 시간을 깨우기 시작했다. 기념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시흥의 독립유공자 중 한 명인 장수산 지사 문중에서 3·1운동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시민,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등이 차례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지역 예술단인 ‘예술공장’의 복합퍼포먼스 ‘그날의 자유의 함성’은 100년 전 시





홍지역의 독립유공자의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어린이와 시민들로 구성된 ‘100인의 시민합창단’은 아리랑을 합창했다. 연령이나 성별, 신분 가릴 것 없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만세운동의 시민정신을 표현한 무대였다. 무대행사가 끝난 뒤 참가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시흥지역 독립지사 이름이 크게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도일삼거리까지 행진한 뒤 다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흥시의 3·1절 기념행사는 2012년 운동옥 지사 묘에서 처음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군자초등학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100년 전 시흥지역의 만세 함성이 가장 크게 울렸던 군자초 교정에는 ‘시흥시 삼일독립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에는 ‘시흥시는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강은식 권희 김병권 김천복 류익수 운동옥 윤병소 이봉문 장수산 홍순칠 그리고 3·1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글 김용운 사진 안영우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시흥에서 가장 오랜 개신교 역사를 가진 무지내교회(금오로118번 안길 19-4)에서 2019년 3월9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라는 부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김규성 YMCA증경이사장, 심우일 YMCA 이사 및 명문고등학교 교감,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이 발제했다.

첫 발제를 한 김규성 이사장은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을 주제로 독립운동과 종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말했다. 김 이사장은 “3·1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무장 독립투쟁 전개, 국내 민족운동 강화 등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심우일 광명시 명문고등학교 교감은 ‘시흥지역 3·1운동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심 교감은 발제에서 “첫째, 항일선양과 친일청산을 위한 시흥시조례 제정. 둘째, 조례를 바탕으로 항일과 친일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전개. 셋째, 사실조사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 실시. 넷째,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도로명, 공원명, 전철역 특화, 사이버 공간 활용)”에 시흥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이 ‘3·1운동과 YMCA’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진곤 사무총장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공감을 느끼고 의미를 깨닫도록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청년, 청소년 관점에서 ‘3.1운동의 재발견’ 프로젝트 수행. 둘째, 시대적 소명을 새롭게 하는 ‘청년/청소년 3·1운동 토론의 광장’ 개최. 셋째, 온라인 ‘3·1운동 100주년 청소년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이다.

무지내교회는 이날 심포지엄 외에도 ‘3·1운동 100주년 사진전’을 열어 당시 만세시위와 시흥지역의 독립운동을 알리기도 했다.

글 김용운 사진 안영우





시흥지역 3·1운동 자료 일람

자료

- 국가보훈처, 1995, 『독립운동유공자 공적조서』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시대상인물카드』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 국사편찬위원회, 1994~6,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9, 21
- 國會圖書館, 1992, 『韓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其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獨立運動史資料集』5

논문 및 발표문

- 김진곤, 2019, 『3.1운동과 YMCA』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시흥YMCA)
- 심우일, 2019, 『시흥지역 3.1운동사』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시흥YMCA)
- 김규성, 2018, 『권희선생의 생애와 시흥지역 3.1독립만세운동』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 김형목, 2018, 『시흥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 심우일, 2018, 『시흥지역 3.1운동 선양사업 살펴보기』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 이병권, 2016, 『시흥시(始興市)의 한국양명학(韓國陽明學) 연구(研究)-장유(張維)와 정제두(鄭齊斗)를 중심으로-』 『京畿鄉土史學』 제21집(京畿道文化院聯合會)
- 이동근, 2015,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 이병권, 2015,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3.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 『京畿鄉土史學』 제20집(京畿道文化院聯合會)
- 이병권, 2014, 『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京畿鄉土史學』 제22집(京畿道文化院聯合會)

단행본 및 보고서

- 김정인, 2019,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9,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자료집』
- 안산문화원, 2019, 『청소년을 위한 안산의 독립운동 이야기』
- 시흥문화원, 2018, 『3.1독립 정신의 계승-시흥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 2017, 『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5집



-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 2016, 『아름답고 활기찬 노년을 찾아서-당신은 희망입니다.』 제4집
- 시흥시 군자동, 2016, 『시흥시 군자동지-군자동의 전통과 미래』
- 시흥문화원, 2013, 『시흥문화』 제16호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자연과 역사』, (안산시사 1)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현대 안산의 변화와 발전』 (안산시사 6)
- 안산문화원 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 보고서』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사 1)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사 2)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 3)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 5)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 6)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6, 『경기도사』 제7권
- 시흥문화원, 2006, 『始興市 地名由來』
- 國學資料院, 1999, 『三,一運動編(現代史資料-25,26-)』 2
- 시흥시, 1996, 『시흥의 역사와 행정』,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①』
- 시흥시, 1995, 『시흥의 인물과 행적』 (시흥향토문화총서 2)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연구총서』1, 경기출판사
-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始興郡誌』上

신문기사

- 장곡타임즈, 2019년 4월 25일, 『장수산 선생을 아십니까-향토사료가 김치성에게 듣는 장수산 선생 이야기』, 『만세운동 백년, 임시정부 백년』 <https://blog.naver.com/janggoktimes/221524355363>
- 시흥장수신문, 2019년 2월 28일, 『피끓는 외침! 대한독립만세!!-시흥지역에서의 3.1혁명 기록 돌아보기』 www.shjangsu.com/8649
- 중부일보, 2018년 11월 15일, [경기지역 근대를 찾아서] 벽처에서 울린 ‘독립만세’... 군자동 주민들 일제에 맞서다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219
- 중부일보, 2018년 10월 15일, [경기지역 근대를 찾아서] 비석거리 만세시위 이끈 독립운동가... 묘비 없이 산속에 쓸쓸이 방치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943
- 시흥장수신문, 2017년 7월 29일, 『봉분 없는 독립운동가의 묘비를 보면서-시흥의 독립운동가 권희 선생』 www.shjangsu.com/7988
- 시흥장수신문, 2014년 3월 4일,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 『사는 이야기』 www.shjangsu.com/6485
- 시흥장수신문, 2009년 5월 7일, 『위낭소리의 추억-신천동 뱀장터 마을』 www.shjangsu.com/3875



인터넷 사이트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홈페이지
www.together100.go.kr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메모리 www.library.kr/memory/index.do
-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www.mpva.go.kr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 디지털시흥문화대전 siheung.grandculture.net
- 미디어시흥, 2019.2.28. 3.1절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www.siheung.go.kr/media/?p=162309
-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 [특집다큐]시흥 3.1운동의 주역(티브로드 한빛방송)<https://youtu.be/pLiERyyOMog>

시흥지역의 3·1운동과 독립지사 이야기

시흥의 함성 100년

발행일 2019년 5월 15일
발행처 시흥문화원
발행인 김영기
기록자 글 : 김용운 박종남 신연호 심우일 유서원 이온
사진 : 박영권 안영우
감수 김치성 이병권
자료제공 시흥시청 향토자료실
디자인 도토리

시흥문화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 조은프라자 4층(하중동 875-1)
홈페이지 <http://www.shculture.or.kr>
전화 031-317-0827
팩스 031-317-0828
이메일 kccf0827@hanmail.net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 책은 시흥시 보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

시흥의 함성 100년

1919-2019 시흥지역의 3·1운동과 독립지사 이야기



시흥문화원